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며 산다면!



최창섭 목사
(에베넬 성교회)

지난 4월 16일, 한국 진도군 조도면 해상에서 침몰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된 엄청난 인재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4개월이 가까워온다. 그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초점을 유병언씨에게 집중한 이유는, 그가 주식회사 세모그룹의 창업주 겸 총수이며,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권신찬 목사의 사위이며, 구원파의 2대 교주로 종교를 빙자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통한 이익에 눈이 멀어 불법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다. 자신이 총수로 있는 자회사의 선박사고로 그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유족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번도 한 적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겠다는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이 그와 그의 자녀들 모두 이곳저곳으로 도피하기에만 급급했던 것을 볼 때 지도자라 칭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결국 두 자녀가 체포되었고, 유병언씨 자신도 지난 7월 22일에 비참하게 사망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비정상적으로 모았던 재산 한 톨도 가져가지 못했다. 어느 일간지 기사제목에는 “세상이 통곡할 때...혼자 살려 도망치다 결국 백골로”라고 기사화 되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심이 있다. 그리고 한 평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책임, 사명을 인식하고 살며, 죽을 때에도 복된 죽음을 맞이하며 주님 앞에 주를 믿는 믿음과 깨끗하고 신실한 삶, 주님게서 인정하실 일들을 잘 감당하다 마지막 순간을 맞이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그는 그렇지 못했다. 그를 통해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워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이 달라져야 한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 세계기독교대회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됐다. 이때 대회를 총괄한 임원이 이렇게 말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장례식을 거행하고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오늘 장례를 치를 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이 각자 한 사람씩 옆방에 가서서 놓여있는 관속을 들여다보시고 누구인가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를 따라 옆방으로 안내를 받게 되었다. 옆방에 들어선 사람들은 한 사람씩 거기에 놓여 있는 관속을 들여다보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관속을 들여다 본 사람마다 깜짝 놀라고는 이내 모두 숙연해졌다. 그리고 모두 깊이 뉘우쳤다.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관속에 거울을 깔아두었으므로 들여다보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된 까닭이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어서 관속에 들어가 장례를 지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대회 인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상기한다면, 현명한 당산은 지금 이 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고 역설했다.”

어느 일간지 오피니언 판에 기자가 “관 속에 누웠을 때”란 글을 썼다. 자신이 관 속에 들어가 누워본 경험을 말하면서 “관 속에 두 발을 넣었다. 그리고 위를 보고 누웠다. 잠시 후 관 뚜껑이 닫혔다. 그 위로 천이 덮혔다. 눈을 떠도 어둠, 눈을 감아도 어둠. 그런데 밖에는 가족도,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들도, 내가 아끼는 모든 물건이 바깥에 있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죽는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죽는다는 게 바깥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안으로 가져올 수 없구나. 관 속에 누운 나를 다시 보았다. 숨을 거두었으니 이 몸도 곧 썩게 되겠구나. 그럼 남은 것은 영혼뿐이겠구나. 한참 후 관 뚜껑이 열려 다시 밖으로 나왔다. 아주 짧은 체험이었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며 산다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을 더 아름답고 가치있게 만들어갈 것이다. 주어진 삶의 환경에 상관없이 매사에 감사하며 살 것이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슴을 멎게 했으며, 내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든 사람도 용서하며 살게 될 것이다. 작은 것을 움켜쥐고 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지도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자그마한 욕심에 사로잡혀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 야심, 욕심, 무언가를 더 크게 이루기 위해 가진 헛된 야망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주어진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한다면 부끄러워 할 것도 없고, 남들에게 추한 모습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의 모습도, 목회자들의 행동, 사역도 그래야 할 것이다. 주님이 언제라도 오라 하시면 지체없이 내가 움켜쥐고 모든 것들,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던 모든 것을 다 놓고 빈손으로 주님께로 가야 한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만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고,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나도 죽어 관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남은 인생은 이전보다 더 다르게 살지 않겠는가?

‘용돈’의 경제학-실수 시행착오 속 청지기 삶 배운다

크리스천 재정전문가들, ‘자녀재정교육 빠를수록 좋다’ 제안

“친구들이 용돈을 받는다며 우리 애도 용돈 달라고 조르는데, 얼마나 되는 돈을 어떻게 줘야할지 모르겠어요. 자기 돈이 생기면 쓸데없이 낭비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성장기 자녀에 관한 문제로서 한인 부모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것은 아마도 좋은 학군으로의 이사나 좋은 학교로의 진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의 자녀 재정교육 역시 중요한 주제이다.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칼리지펀드플랜이나 생명보험 등을 통한 재정교육은 ‘상급코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용돈을 통한 교육은 언제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민생활에 바빠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는 하교이후 아이들을 보육시설이나 각종 학원 등에 거의 하루 종일 맡기면서 ‘미안한 마음에’ 지나치게 많은 용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또는 이와 대조적으로 아이들을 늘 돌보고 있는 부모는 “필요한 것은 뭘든지 그때그때 사주는데 별도 용돈이 꼭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따라서 크리스천 재정 전문가들은 어렸을 때부터, 재정적으로도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현명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다(Unspoiled Children, No Rod Needed: How Parents Can Be Generous Without Turning Children Into Entitled Little Terrors).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지만, 너무 오냐오냐 하다가 버릇없고 감사를 모르는 아이로 만들고 싶진 않을 것이다. 어릴 때는 징징거리는데 그칠지 몰라도 크면 과소비와 빚더미에서 허우적거리는, 재정적으로 의존적이고 무책임한 어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 소재 웰스파고 프라이빗뱅크의 캐서린 딘 자산관리 이사는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모든 것을 가져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다음은 재정자문 및 전문가들이 제안한 자녀를 양치기 않기 위한 몇 가지다:

1. 부모 자신의 의도부터 파악하라

뉴저지의 사회심리학자 수전 뉴먼은 “왜 아이에게 이렇게 베풀고 싶어하는지?”부터 자문하라고 말한다. 아이가 날 좋아하게 만들려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데 대한 죄책감을 만회하려고, 내가 어릴 때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보상심리로, 친구나 이웃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등등 말이다. 부모 자신이 어떤 동기로 그러는지를 파악하면 습관처럼 굳어진 행동을 버리고 다른 접근법을 취하기가 쉽다.

일하느라 아이와 같이 있지 못해 드는 죄책감을 만회하려한다면 새 장난감 하나 사주는 대신, 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나가거나 요리를 하는 등 시간을 함께 보낸다. 나단 던칸 셰어 세이브 스펠드(Share Save Spend) 대표는 “선물로 흘러가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도 없을 뿐더러 아이의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지도 않는다”고 강조한다.

2. 돈 얘기, 피하지마라

시카고 노턴트러스트자산관리의 앤 프릴 가족교육전문가에 따르면 부모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녀가 지나치게 돈에 관심을 가질까봐 아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이들은 일찌감치 예를 들어 친구 집이 자기 집보다 크다는 것을 보고 돈의 개념을 알아차린다. 부모가 집 크기에 따라 사람을 평가한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가정의 중시하는 돈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부모가 “물질은 사랑과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이를 자녀에게 말해주고 부모가 돈보다 중시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면 이같은 믿음을 뒷받침할 수 있다.

프릴의 고객 한 명은 자녀에게 자신이 회사동료나 친구, 이웃들에게서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자질(신앙, 지성, 친절함, 유머감각, 성실성 등)을 말해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의 재산 정도는 개이지 않고 이런 자질이 없는 사람은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아이들에게 강조할 수 있다.”



3. 자녀를 교육시켜라

아이가 경제관념이 없어 걱정이라면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어야 되는’ 현실 세계의 소비결정에 관해 이야기한다. 중학생 정도일 때부터는 가계예산을 짜는데 아이를 참여시켜볼 수 있다. 아이에게 실제 가계부를 열어 보여주어 경제관념을 키울 수 있다.

다리도록 한다.”

몇 번 이렇게 하다보면 아이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순간의 만족을 위해 마구 써버리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미래의 성공적인 재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열쇠다.

4. 모범을 보여라

부모자신 의도파악, 모범보이고 때론 거절도 받은 것 나눠주고 돌려주는 자녀로 키워야

을 것이다.

예를 들어, 액수가 아닌 비율로 나타낸 월 가계소비지출 항목들을 보여주고 “어디에 몇 프로를 책정하겠는지 아이에게 묻는다. 어떤 항목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경우 어떤 것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묻는다.”

하와이의 재무심리학자 브래드 클론츠에 따르면 선불요금제는 휴대폰 요금을 제한하고 예산안 운영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첫 달에는 며칠 만에 요금을 다 써버릴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다고 바로 “요금을 충전해주지 말고 다음 달까지 기

프릴은 “아이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의 일상적인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소량하는 게, 더구나 내가 그럴 만한 여력이 있어서라면 무슨 해가 될까 싶겠지만, 아이들은 이걸 보고 물질로 정서적 고통이나 허전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팁을 주는 습관이나 기부금을 내는 행위, 기타 부모가 자신이 가진 것을 어떻게 베푸는지도 아이에게 돈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준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기독교 박해자(가)-막시미누스 황제

한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대체적으로 역사가들은 그리고 싶은 대상의 삶을 자신의 주관적 성향으로 진단한다. 그것은 아무리 객관적이라 해도 자신의 문화적 성향과 사상적 주관을 배제할 수 없다. 고로 우리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어떤 대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기에 바른 역사관이란 존재할 수 없지 싶다.

막시미누스(Maximinus 235-238) 황제는 스물다섯 번째로 로마 황제가 된 사람이다. 그는 전임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가 암살당하자 부하들의 지지로 게르마니아의 국경지대인 마인츠에서 군인 황제로 즉위했다. 당시는 군대의 지지가 황제로서의 중요한 관건이 되었던 시대였다. 그런데 막시미누스는 겨우 3년 동안 황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는 트라키아(발칸반도 남동쪽)사람으로 농민 출신이었다. 당시는 낮은 신분이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군대에 나가 공

을 세우는 일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분의 격상을 원하는 꿈꾸는 자마다 너나없이 군대를 지원하곤 했다. 그는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군 생활을 성실하게 수행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자질 중에 하나인 괴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골리앗이 용사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도 강한 힘의 소유자였다. 당시 하층민이었던 그는 전선에 시찰을 나온 막시미누스 황제 앞에서 자신의 괴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나섰다. 흥미를 느낀 황제는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싸워보라고 했다. 흔히 전선은 불거리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행사는 잠깐 동안 병사들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스포츠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황제의 친위대를 연속적으로 격파하였고 무려 24명이나 쓰러뜨렸다. 친위대는 당시에 내로라하는 무장들이었는데 말이다. 황제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를 마음에 쏙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날 황제가 진을 떠나는데 막시미누스가 달려가 황제가 타고 가는 마차를 쫓아갔다. 그는 황제 앞에 엎드려 자신을 장교로 써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수 킬로를 달렸는데도 기운이 여전이 남아있었다. 황제는 농담으로 아직도 레슬링을 할 기운이 남았느냐고 묻자 막시미누스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 자리에서 친위대 7명을 순식간에 넘어뜨리고 굵은 나무를 맨손으로 뽑아 버리는 괴력을 보였다. 그런 모습을 눈여겨 본 황제는 감동하여 그를 그 자리에서 장교로 임명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는 그는 2미터가 훨씬 넘는 신장을 가졌다고 한다. 기네스북에는 최고의 신장이 2미터40센티라고 한다. 그런데 막시미누스의 신장이 그 정도였다고 하니 당시로는 괴력의 소유자로 손색이 없었다. 골 족들은 로마인의 작은 키를 보고 업신여겼다고 했는데 당시로는 키가 크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큰 이점이었다.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되자 폭군의 길을 걸어갔다. 준비가 되지 않은 황제이었고 지도자로서의 인품과 식견도 없었다. 그는 법을 개정하여 성직자들을 처형하였고 황제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모든 사람은 공개적으로 신전으로 나와 희생제물을 드려야 할 것을 국가적

으로 공포하였다. 이 명령을 거부하는 자는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엄히 다스리겠다고 엄명을 내렸다. 그래서 이런 황제의 명령에 타협하지 않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수난을 당해야 했다.

그는 불응하는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지도자들을 처형했고 유형과 투옥을 일삼았다. 황제는 자신의 임기 동안에 사형에 처하기보다 감옥에 투옥시키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다. 막시미누스 황제로 인해 당시 로마의 감옥이었던 캄포리티스와 폰티아너스(pontianus 230-235, 칼릭투스 카타콤베에 그의 무덤이 발견됨)는 이탈리아의 섬 사르데냐의 금광에 유배되어 예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히폴리투스(Hippolytus 218-235, 로마 최초의 대립 감독)와 우르술라도 순교를 당해야 했다. 이는 지도자였으니 평신도 가운데는 광장히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당하고 말았다. 그는 도나우강과 라인강 유역의 여러 부족을 물리치는 지도력을 보였으나 그런 자부심 때문인지 원로원과는 불관

관계였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로마의 안위는 변방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에 의해 달렸다고 보았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원로원들이야말로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비생산적인 무리들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더구나 자신은 로마의 원로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급 출신이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그들을 무시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후에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향해 무력을 시위하려고 이탈리아로 진군하던 중 부하들에 의해 피살당하고 말았다. 고로 로마는 또 다시 혼돈의 세기로 빠져들게 되었다. 과거 그 뛰어났던 황제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자만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원로원과 가까이 하면서 정치를 했더라면 현명한 황제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황제의 자리만 앞으면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하여 객기를 부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싶다.

푸 / 른 / 초 / 장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시는 모티프가운데(12:1-16:4)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2천년 교회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온 질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의 이름은 세상과 충돌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1.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13-14)

(13)“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당시 분봉왕 헤롯 빌립2세의 지배하에 있었던 곳이며, 디베로 가이사 황제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하얀 대리석으로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바칠 정도로 황제숭배사상이 만연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누가 진정한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가져다주는가? 가이사(황제)외에는 없다고 해야 살아남는 시기입니다. 당시 로마의 평화는 로마제국의 지배계급들에게는 세속적으로 태평성대였지만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민중들에게는 로마의 평화유지를 위한 로마의 폭력과 착취로 고통 받는 제국주의 체제였습니다.

미에서는 예수를 민중의 혁명자로 둔갑시켜 정치적 해방 신학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아?: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고, 물위를 걸으시고, 수많은 각색질병과 귀신을 쫓아내셨던 예수의 기적들을 보면서,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성공과 건강과 부의 증진에 목말라 하는 현대인들은 제2의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기에, 능력종교(power religion)로 불을 일으키더니, 다른 한편으로 제2, 제3의 조엘 오스틴(Joel Osteen)은 긍정의 힘으로 위장된 복음을 상품화 하고 있습니다.

제 설명해주시는 예수에게서 위대한 선지자나 람비를 연상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자체의 권위보다 이상하리만큼 마케팅전략이나 프로그램에 마치 목숨이라도 거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두는 여전히 현대 교회 안에서 예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16)

(15)“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는 ‘주’(the Lord)이십니다. ‘주’는 구약시대 여호와(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한 용어입니다. 곧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요1:1-3).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행위 언약을 맺으셨으며(창3:3), 언약에 실패한 인간을 구속(Redemption)하시기 위해 친히 자기의 피로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기름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십니다(사11:2-4; 42:1-2; 61:1-3). 이 사실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셨습니다(마3:16-17).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며 아름다운 덕(구속의 복음)을 선전하도록 부름 받은 자입니다(벧전2:9).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은 아무리 천사와 같이 고상한 인품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갈1:8). 우리가 전할 유일한 복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사실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the living God)입니다.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의를 친히 이루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은 ‘인자’(13, the Son of Man, 단7:13-14)로 보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DNA를 그대로 품고 있듯이,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히1:2-3).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요1서2:22; 4:2-3; 요2서1:7).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양성을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9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6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그렇지 않아도 뉴스에 넘쳐나던 재앙의 리스트에 또 하나의 재앙이 온 세계의 매스컴을 채우고 있다. 24시간 계속 보도되는 것이 에볼라 재앙이다. 지난주에는 몇 년에 한번 들을까 말까 하는 비행기 참사가 계속하여서 터지더니 이제 는 무서운 에볼라 바이러스(EVD)로 아프리카는 마비상태이다. 전 세계는 초긴장 가운데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물론 한 질병에 대한 공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지난 2009년도에 일어난 돼지독감 H1N1 대폭발로 284,500명이 사람들이 죽었다. 전문가들은 사실 훨씬 더 많은 58

개발된다 하더라도 실험할 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물론 지금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는 사람은 말라리아 등에 의한 사망자 수에 비하면 적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연구자금은 대부분이 바이러스가 생물을 이용한 테러를 우려하는 정부들이 지원하고 있다.

에볼라는 1976년에 처음으로 수단과 자이르(현재 콩고) 두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발병했었는데 지금은 5종류의 바이러스가 분류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세계적인 공포를 일으켰던 SARS 등의 조류 독감과는 달리 공기로 전

있다. 치유 방법도 없으면서 환자를 받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96년에 제작된 Tom Clancy의 소설 'Executive Orders'라는 소설에서는 중동의 이슬람 테러범들이 에볼라 바이러스 폭탄을 제조하여 미국을 공격한다는 내용이다. 재미있는 것은 CNN보도는 한 소년이 에볼라에 감염되었다가 회복이 되었는데 질병관리 전문가들은 회복된 그 소년의 피를 통해서 백신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한다는 것이다.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일이 현재에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그치지 않는다. 1928년 의학계는 페니실린의 발견으로 항생제를 개발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은총을 입었다. 그 외에도 많은 항생제들이 나왔지만 슈퍼 박테리아는 이런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무서운 병균이다.

2010년 일본에 슈퍼박테리아 감

문이다. 더구나 에볼라와 같은 신종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변형되기 때문에 그 위험도가 심각하다.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것은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함으로 오는 대규모의 전염병의 발발 가능성이 아주 낮았던 시대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세의 오경에는 격리법Quarantine을 명령했다. 사람들은 격리법의 이유와 그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가 중세의 수많은 역병들이 창궐할 때에 성경에서 깨달아 사용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현대에도 전염병의 확산 방지의 최선의 방법은 격리이다.

성경에는 중매의 때에 일어날 질병에 대한 경고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의 4분의 1에 미치는 무서운 사망(계6:8), 온역(겔14:21), 난리와 소란의 소문(막13:8, 눅21:9) 등이 예언되어져 있다. 그 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재난은 많이 언급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재앙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만명 가깝게 죽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 후에도 SARS, Asian flu 등 새로운 이름을 갖는 새로운 독감이 매해 출몰하면서 세계를 공포에 빠지게 했다. H5N1 조류 독감도 세계 180개국을 휩쓸면서 온 세계가 공포에 빠졌었다.

에볼라는 그전에는 에볼라 출혈로 알려졌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무서운 것은 치사율이 90%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금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에볼라 재앙의 치사율은 60% 수준이라고 한다. 현재에는 열대 밀림지역 중에서 서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야생동물로부터 전염이 되고, 또한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지는 무서운 병이다. 에볼라는 특별히 과일을 먹는 박쥐가 보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염 경로를 통해서 무섭게 퍼지고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아무런 치료법이 없다. 백신도 없다.

치료제 개발이 안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워낙 위험해 다루기가 쉽지 않은데다 시험접시에서는 배양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과 보안 장치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극소수의 연구실에서만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치명적이고 매우 희귀하기에 출현을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치료제가

염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잠복기가 2-12일이지만 최고로 25일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전염의 세계적 확산 위험성을 결단코 무시할 수 없다. 잠복기 7-9일째에는 두통, 피로감, 열, 근육통으로 시작하는데, 12일째에는 의식을 잃고, 경련, 장기출혈,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 역설적으로 설사와 구토는 회복을 돕는다고 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발병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 규모가 여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립된 마을에서 발병하였는데 이번에는 여러 나라에 걸쳐서 확산되면서 국경들을 폐쇄하기 때문에 전 아프리카가 마비된 지경에 이르렀다. 나이베리아의 에볼라 사망자의 숫자도 가속도를 붙여서 하루 전에 826명이었는데 이제는 900명을 육박하고 또한 2차 감염자도 발생하게 되었다. 더구나 에볼라 바이러스의 전문가가 있던 시에라리온의 셰이크 우마르 칸 박사도 이 바이러스에 생명을 잃으면서 그 충격은 가중되었다.

특히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나갔다가 감염된 사람들이 미국에 돌아오는 문제를 가지고 또 논쟁이 불붙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에볼라 테러설, 에볼라 음모설 등이 난무할 정도로 혼돈스러워하고

염에 9명이 죽는 사건으로 일본이 뒤집어졌다. 2013년 한국질병관리 본부는 200여개의 의료 기관을 점검한 결과 13개 병원에서 신종 슈퍼 박테리아 감염환자 63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소동이 일어났었다. 슈퍼 박테리아는 병원을 통해서 감염이 자주 발생한다. 상처난 사람들이 많은 환경에서 또한 항생제를 남용하여서 내성이 생긴 사람들에게 발생한다. 물론 국경을 넘어서 발병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의료관광의 유통과정을 통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한다.

물론 전문가들은 슈퍼 박테리아가 'super'하지 않다는 주장을 한다. 여러 종류의 슈퍼박테리아들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만 신종플루 대란과 같은 전염성은 없다고 한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성경은 이러한 재앙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성경은 인간사와 관계된 질병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다.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내린 재앙 가운데 다섯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생축의 죽음이였다. 생축 즉 말과 나귀와 양과 우양에 내린 심한 악질이었다(출9:3). 여섯째 재앙은 사람과 짐승에게 독종이 발하였다(출9:10). 이 경우는 사람과 짐승이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우리가 SARS나 에볼라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것은 집중에서 사람으로 전염되고, 또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기 때

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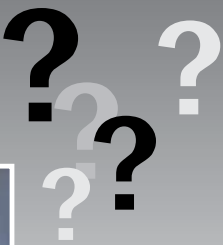
과거의 역병은 지역적인 파괴로 끝났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다.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 사는 지구촌 시대의 우리는 좋은 것도 물론 나쁜 것도 함께 세계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과거의 교통이 불편해서 떨어져 살던 시대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다. 다니엘서에서 나타난 데로 말세에 왕래가 빨라지는 징조에서 보듯이 교통만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왕래도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격리법도 더욱 더 힘들어지는 시대이다. 질병은 인간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공적이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에는 질병도 없다고 하셨다.

우리의 시대는 성경에 나타난 말세의 징조들 중에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천히 목도되고 있는 시대이다. 진실로 아프리카 전역과 세계로 확장되는 에볼라 재앙의 폭풍이 잠잠해지고, 잘 극복되고, 어려움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한다. 하지만 에볼라 재앙과 같은 이야기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자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에볼라 재앙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더욱 더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시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서 신앙 생활하자.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s0316@gmail.com

Q: 제가 최근에 새 비즈니스를 맡아 세탁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업을 성경적으로 잘 운영하고 싶은데 크리스천이 알아야 할 성경적인 비즈니스의 원리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우스베이의 김 집사

A: 주님은 영적인 문제 뿐 아니라 성도들의 비즈니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의 사업현장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 베드로의 텃밭 그물에 고기를 몰아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후9:10의 말씀같이 이 땅에서 살아갈 만한 생활양식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심는 씨앗을 주셔서 선한 일에도 크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몇 가지 비즈니스의 성경적인 경영을 소개합니다.

1. 인간 존중의 경영-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합니다(마16:26). 요즘 비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기업들, 특히 탁월성을 추구하는 많은 기업들이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 “인간존중의 경영”입니다. IBM과 렉스컴 같은 경우에 “고객을 위한 가치 창조” “인간존중” 이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종업원 만족 없는 고객 만족 없다” 그래서 종업원부터 만족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그러한 결의들이 모두가 인간존중의 경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홀리데이인의 창설자인 켈문즈 윌슨이라는 사람은 1956년에 홀리데이인을 만들면서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 강령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

인간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업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엄하다고 인식하는 기독교의 원리 특히 이웃사랑의 정신에서 기업을 세우고 사업을 하기로 한다. 4개의 모델에서 출발한 홀리데이인은 16년 만에 2천개에 달하는 모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5만 명의 종업원들이 매일 25만명의 고객들을 모델에 들이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의 주인 되심(Lordship)-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셨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예를 들면 나의 재물, 시간,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경영하는 기업까지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므로 나는 기업을 경영할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합니다.

방선기 목사님이 이랜드의 예를 들면서 박성수 사장과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의할 때 박사장이 그 즉석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회장님에게 한번 여쭙아보겠다고 하는 얘기를 간혹 한답니다. 회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권(Lordship)의 개념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무한한 능력과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을 후원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3. 청지기 정신(Stewardship)-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 건강, 시간, 물질 등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이의 양육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번 돈,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교회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4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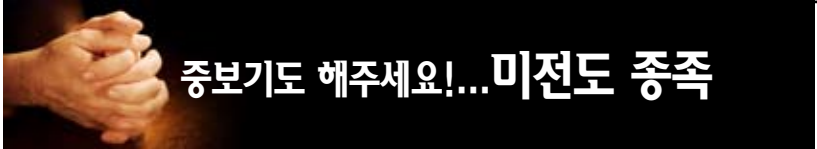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령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 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9월 5일(금) 오후6시
- 3 입 학 시 험 : 2014년 9월 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4년 9월 8일(월) - 10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감 / 교무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신장로회신학교

학장 장 영 춘 박사



인도의 데오리(Deori)



24,000명의 데오리인들은 인도 동북부를 흐르는 브라마강을 따라 주변에 거주한다. 그들은 주로 아쌈주, 나갈란드주, 아루나찰 프라데시주에 살고 있다. 데오리인들은 티벳-버마 언어군에 속하는 데오리어를 사용한다.

데오리인들은 추티야(Chutiya) 민족 집단 네 분파 중 하나이며, 동부 보도-가로(Bodo-Garo)족과도 관련이 있다. 미얀마와 티베트를 지나 인도에 와서 가로와 카차르 고지에 정착한 몽고인들은 보도인들을 괴롭혔다고 한다. 그 후에 보도인들은 많은 씨족 단위로 나뉘어졌으며, 각기 다른 집단의 이름을 갖게 됐고 그 중의 하나가 데오리다. 데오리인들은 보기 드물게 종족의 동질성을 유지해왔다. 그들은 다른 종족에 비해 외모가 몽고인을 많이 닮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보

도 부족과의 인종적 혼합이나 다른 종족과의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낙천적이고 쾌활하며 자유를 사랑하는 사나운 전사들이다.

삶의 모습

데오리 지방의 산업발달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선은 인도 동부지역이 나머지 인도 땅과 어느 정도 격리돼 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또한 운송체계가 열악하고 작은 지역 시장만이 있을 뿐이다. 그 결과 데오리인들은 생존을 위한 활동이 농업에 제한돼있다. 관개시설을 갖춘 논에서 벼를 키우는 것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화전법(slash and burn)을 사용해 이동하면서 경작을 한다. 들판을 불태운 후 재속에 씨를 뿌리고 일어난 동안 농작물을 수확하며, 그 후에 다른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결과적으로 산하리에 자연적인 열대성림의 숲으로 이루어진 초목은 상당한 지역이 파괴됐고 대나무 덩굴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데오리인들은 강둑을 따라 드문 드문 마을을 이뤄 살고 있다. 집은 강에 접해 있고 이영지붕에 대나무로 만들어져 있다. 건물은 나무나 대나무 기둥을 이용해 땅에서 4-6피트 떨어져 있어 집 아래 공간은 염소, 돼지, 닭을 키우기 위한 공간이 된다. 데오리인들은 위생개념이 부족하다.

데오리인들의 사회적 특징 중 하나는 대가족 전체가 한 지방아래 사는 것이다. 그들은 가족수가 늘어감에 따라 집을 확장하며, 간혹 100명 이상이 한 집에 살기도 한다. 이들 대부분은 모두 동족 결혼을 하는데, 이러한 관습을 통해서 독창적인 문화를 유지해왔다. 신앙은 신부의 가족에게 전통적인

로 치루는 신부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만약 그가 가난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처가집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한다.

데오리 혈통은 부계를 따라 전해진다. 아들들은 상속재산을 균등하게 나눠 갖지만 딸은 유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 데오리의 사회구조는 마을의 평의회 아래 조직되며 평의회의 구성원들은 높은 도덕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신앙

과거에 데오리인들은 추티야의 사제들이었다. 근래까지도 그들은 개종을 적대시하며 그들의 언어를 고집하고 돼지와 닭을 제물로 '대모여신'(mother goddesses)을 달래는 등 그들이 본래 가졌던 종교를 계속 유지한다.

오늘날 불교도도 있고 고대의 종교와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도 있기는 하나 데오리인들은 주로 힌두교도다. 현재 사제 계층은 전혀 없다. 그래서 종교적 의식은 지금까지도 보통 데오리(deoris)라고 불리는 마을의 장로에 의해 행해진다. 힌두교 전체에서 숭배되는 신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과 자연의 신들을 숭배한다. 그들은 땅, 하늘, 공기, 불의 신을 강조한다. 지역의 사당은 없으며 가족과 마을의 신은 따로 개별적으로 숭배된다.

필요로 하는 것들

현재 데오리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는 없으며 그들의 언어로는 말 씀 한 구절도 번역되지 않았다. 그들에게 헌신적인 기독교 사역자가 필요하다. 창조자보다는 창조물을 숭배하는 속박으로부터 데오리인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기 위한 첫걸음은 기도일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하원, 오바마 제소 결의안 통과

미국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관한 남용을 사유로 제소하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찬성 225 대 반대 201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행정명령 남용을 사유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할 권한을 준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에게 부여하는 게 골자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0년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행정명령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내년부턴 정규직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월 임의로 행정명령을 발동해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베이너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것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냐의 문제가 아닌 헌법 수호의 문제"라며 "어떤 법을 실행하고 어떤 법을 바꿀지 대통령이 선택하도록 놔둘 것"이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오바마 대통령 제소 계획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곡예'(political stunt)에 불과하며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기 위한 전조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수적 열세로 공화당에 밀리면서 결의안이 통과됐다.

공화당은 구체적인 소송 절차에 대한 일정표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실제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더라도 사법부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에 개입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만큼 소송이 성립하려면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사법 시스템을 모두 거치려면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결론이 날지 불분명하다.

중국, '종교제한국' 비판에 "내정간섭 말라" 경고

중국은 미국이 최근 북한, 중국 등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한 데 대해 "정치적 편견을 버리고 종교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진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자료를 통해 중국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 이미 미국에 엄정하게 항의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국정부는 법에 따라 공민들의 종교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중국인민은 법에 따라 종교신앙의 자유를 누린다"며 "우리는 미국이 객관적 사실을 무시하고 그러한 보고서를 발간해 중국의 종교정책을 왜곡·공격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28일 발표한 '2013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이란,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하마스 설립자 아들 하마스 비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설립자 아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때문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마스 설립자 중 한 사람인 셰이크 하산 유세프



의 아들인 모ష 하산 유세프(36)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미국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을 잃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다"며 "이념을 위해 죽는 것을 일종의 예배의 식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어 "하마스는 공존이나 협상 없이 점령과 정복만을 추구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봉기시키고 나아가 모든 문명의 폐허 위에 이슬람 국가를 건설한다는 최종 목적을 실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하마스의 무자비함도 폭로했다. 그는 "하마스는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이슬람 국가를 건설할 수 없다'는 이념을 5세 아이들에게도 주입시키고 있다"며 "나도 그랬지만 이 이념에 반기를 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가자지구의 아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유세프는 5세부터 하마스 무장대원 교육을 받으며 자라다 하마스의 극단주의에 환멸을 갖게 됐다. 1999년 영국 선교사를 만나 기독교 교리를 접한 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감명받아 2005년 비밀리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거듭났다. 하마스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는 등 고초를 겪다가 2007년 미국으로 건너가 살고 있다. 2010년에는 하마스를 고발하는 '하마스의 아들'을 출간했다.

미 항소법원 "9·11 십자가 전시 문제없어"

미국 뉴욕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8일 9·11테러로 무너진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발견된 십자가 모양 철재가 9·11박물관에 전시되는 것을 막아 달라며 무신론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 십자가 모양 철재는 '그라운드제로의 십자가(The Cross at Ground Zero)'로 불리며 많은 관람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라운드제로의 십자가를 전시하는 목적은 9·11테러의 역사를 상기하는 데 있기 때문에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것"이라며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일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과 치유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9·11테러 현장에서 이 십자가를 처음 발견한 철공노동자 프랭크 실레지(60)는 승소 판결에 기쁨의 눈

물을 흘렸다. 실레지는 십자가가 폐기되지 않고 전시될 수 있도록 시의 허가를 이끌어냈다. 그는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믿음이 무신론자들을 이겼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미국 무신론자협회 AA(American-Atheists)는 지난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박물관이 종교적 상징물을 전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박물관과 관련 정부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AA의 한 회원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두통과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쳤다.

"WeAreN" 박해 속에 핀 아름다운 연대

트위터 아이디 'sister-mclark'는 28일 "여호와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는 시편 29편 일부를 올리며 해시태그 #WeAreN을 달았다. N은 기독교인을 뜻하는 아랍어 '나스라니(Nasrani)'의 첫 글자다. '우리 모두는 기독교인'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박해받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이디 'sabinadenicola'는 영어 알파벳 U와 비슷한 아랍문자 N을 손등에 적은 모습을 자기소개 사진으로 설정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모술의 기독교인을 위해 기도한다"고 적었다.

세계 네티즌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받는 이라크 기독교인을 지지하는 온라인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19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단체 '이슬람 국가(IS, 옛 ISIL)'가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기독교인의 집 벽에 아랍문자 N을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인만 골라 테러를 벌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접한 날부터 현재까지 '우리도 그들과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의미를 담아 게시글 말미에 #WeAreN을 적거나 아랍문자 N이 포함된 사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모술뿐 아니라 이라크 전체와 시리아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의 안전도 기원했다. 또 이들 지역의 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기간 2014년 8월 21일(목, 저녁) ~ 9월 4일(목, 저녁)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센터)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 2014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축축기 기도성회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미종진목사)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명교회 (지동근목사)
10일 ~ 12일	청바중영교회(김영우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3일	오산의 최자실7월 금식기도원		

2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남)
17일 ~ 19일	웅인 신세계교회(홍준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 (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명교회 (지동근목사)

3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남)
14일	성일교회(원영숙목사)	17일 ~ 19일	별안 사명의교회(서/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훈목사)	29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재물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한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남)	20일 ~ 23일	신명중영교회(김영우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한규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남)	19일 ~ 22일	갈멜산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6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환목사)

6

9일 ~ 11일	명수대학교(김강덕목사)	15일	주름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남)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8일 ~ 29일	LA 나성중영교회(한기홍목사)		

7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명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남)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홍수이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남)

8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남)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미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웅인교회(정명영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영준목사)

9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영남)
13일 ~ 16일	일미사서신시종영교회(홍일목사)	17일	영문교회(정명영목사)
21일 ~ 23일	오병이교회(김영우목사)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3)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카이퍼의 사회 개혁의 관심



카이퍼 연구가 톨만(J. C. Rul-
mann)은 그의 아브라함 카이
퍼 전기에서 카이퍼를 ‘사회개혁
자’(Sociale Hervorminger)이라
고 불렀다. 사실 카이퍼가 기독교
정치가로 나서면서 그의 지지
들은 처음부터 가난한 보통 사람
인 ‘Kleine Luyden’이었고, 자신이
쓴 “사회개혁자”, “그리스도와 사
회적 필요”, “기독교와 사회문제”,
“육체노동” 등 노동자들의 문제 해
결을 위한 관심을 남다르게 표현
하였다.

그는 정치에 입문하자마자 칼
빈주의적 시각에서 정치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기 위
해서 첫 번 투쟁이 이른바 기독교
교육(Christelijk Onderwijs)을 바
로 세우기 위한 대투쟁에 돌입했
다. 그러면서 사회적(Maatschap-
pelijk)이고 정치적 개혁에 더 깊
이 들어가게 되었다. 즉 노동자의
권익문제, 임금문제 등 실제적인
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을 모색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동법을 고치는 것이었

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카이퍼에게 있어서 정치란 교육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 미친다고 주장 사회복음주의 아닌 복음이 지닌 사회적 의미를 기독교인 양심에 호소

고, 그러기 위해서 그가 당수로 있
는 반혁명당의 정당 정책을 확실히
만드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의 계획”(Ons Program)이
란 커다란 책을 출판했다. 이 책에
는 반혁명당의 정치원리와 실행방
법 등이 자세히 쓰여 있다.

그런데 카이퍼는 그의 만년에
이 책을 더욱 확장시켜 “반혁명 정
치학”(Antirevolutionaire Staat-
kunde)이라 하여 전에 발표했던
정당정책에 주해를 했다. 여기에는
1권이 원리, 2권은 실천으로 되
어있는데, 특히 카이퍼 사회개혁
및 사회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이 작업을 위해서 첫
째는 의회에서 투쟁을 했고 지지
자들을 규합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헤라우트’와 ‘스텐다드’를 그
의 입처럼 사용했다. 스텐다드 즉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란 말인데
카이퍼는 스텐다드지에서 50년간
을 사실을 써내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
해 나갔다.

그는 무조건 노동자를 옹호하거
나 노동자들에 혜택을 준다는 개
념보다는 정치의 중심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법과 원칙 하

의 생사가 걸린 경제 문제나 노동
문제도, 제도적 법적 장치를 통해
서 개선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카이퍼에게 있어서는
자유 방임주의적 사상이나 신흥
기업가들의 탐욕으로 억울하게 피
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없어야 한
다고 생각했다.

카이퍼는 그 시대의 선구자라
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카이퍼는 그
가 속한 반혁명당의 동지로 부터
도 반대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카이퍼가 원하는 사회
개혁은 좀 더 깊이 보면 정치가들
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었다. 그러
니 사회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고 해도, 법률을 고지거나 제도적
으로 새롭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는 굉장히 미온적인 사람들이 대
부분이였다.

카이퍼는 국회에서 정치를 하기
훨씬 전에도, 목사로서 항상 복음
이 지니는 사회적 의무를 역설했
다. 그는 설교를 통해서 또는 헤라
우트지나 스텐다드지의 논설을 통
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
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고난 받
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장했다.
카이퍼는 이론가나 공상가가 아니
라 그는 실천가로서 기어이 뜻을
정하고 이루는 사람이였다. 카이
퍼는 사회복음(Social Gospel)주
의자가 아니라 본래 복음이 지니
는 사회적 의미를 기독교인의 양
심에 호소했다.

〈다음호에 계속〉

칼럼 음악목회 (33)

또 하나의 지휘자 (4)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교회에 따라 음악목회의 현장은
다양합니다. 아직 찬양대가 구성되
지 않은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도
있고 더러는 담임 목회자의 취향이
나 철학에 따라 찬양대를 의도적으
로 세우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시작된 전통적인 찬양
대를 구성하고 예배에 투입하는 것
은 물론 교회력에 따라 성탄절, 부
활절, 감사절 등 절기마다 찬양대
를 통해 절기음악으로 특별한 시리
즈 음악프로그램을 갖기도 합니다.
부연하자면 기독교를 세상 속에 알
리고 또한 기존 성도들에게 정서적
으로 문화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이와 같

은 절기 음악프로그램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교회음악 프로그
램을 할 때는 평소 예배와는 달리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여 협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들
은 오케스트라를 육성하여 주일에
배와 특별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인
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
는 교회 영상담당자들이 오직 피아
노 반주만으로 노래하는 찬양대 찬
양도 정확하게 영상을 잡지 못하는
데 이렇게 다양한 악기가 협연하는
오케스트라를 어떻게 영상으로 담
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지휘자는 Full Score(전체 악보)
를 보고 지휘합니다. 그 많은 악기

들이 언제 쉬었다 언제 나오는지를
악보를 통해 다 알고 지휘를 합니
다. 그러니까 연주자가 쉬고 있다
가 연주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지휘
자를 바라보고 지휘자의 큐에 맞추
어 연주를 시작합니다. 이 때 지휘
자는 한 박자 전을 지휘합니다. 그
러면 준비하고 있다가 곧바로 정학
한 박자에 맞추어 연주를 시작합니
다. 바로 이것이 지휘 예술이지요.
청중(성도)도 지휘자의 지휘에 따
라 다양한 음색과 다양한 음악적인
표현과 감정적인 표현까지 함께 느
끼고 즐기면서 음악을 감상합니다.
더구나 찬양대원들은 물론 오케스
트라 단원들만이 아니라 청중까지
도 그들의 심령으로부터 절정에 달

하는 음악과 더불어 신앙심을 끌어
내야하는 심오하고도 난해한 것이
바로 지휘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은 그 음악을 통솔함에 있어 그 음
악의 템포와 정확한 박자입니다. 즉
한 박자 전을 지휘해야만이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피아
노와 오르간 그리고 찬양대까지 모
두가 정확한 박자에 맞추어 지저분
하지 않고 명료하게 찬양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
나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영
상을 담당하신 디렉터입니다. 영상
PD는 무대에서 지휘하고 있는 지
휘자 못지않게 Full Score를 다 읽
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
한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의 배
치를 파악하고 카메라를 미리 미리
돌려 쉬고 있던 특수한 악기(목관
악기나 금관악기 또는 타악기 등)
가 연주를 시작하는 순간 바로 한
박자 전에 그 악기와 연주자를 크
로즈업하여 영상에 담는다면 이 또
한 바로 예술이 아니고 무엇이었습
니까?

영상 담당자는 무대에서 지휘하

고 있는 지휘자와 똑같이 카메라맨
에게 한 박자 전에 큐를 주어야 합
니다. 물론 그보다 훨씬 먼저 어떤
카메라를 미리 움직여 준비를 시켜
야 되겠지요.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
의 음악이 발달한 나라들의 음악프
로그램 영상들을 보면 한 치의 실
수도 없이 아주 명료하게 지휘자가
한 박자 전을 지휘하듯이 영상에
담아내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것
은 바로 한 사람 영상을 총 책임지
고 있는 음악PD의 능력입니다. 저
는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물론 그
렇게 수도 없이 많은 한국의 TV방
송 음악PD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이
와 같이 음악을 영상으로 명료하게
담아내는 예술가를 보지 못했습니
다.

한편 세속음악을 다루는 음악PD
들 중에는 뛰어난 감각으로 밴드
와 노래하는 가수 그리고 보컬 그
룹들의 음악을 영상으로 잘 잡아내
는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명확하
게 한 박자 전을 잡아내는 능력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속
음악은 오케스트레이션이 악보로

표기된 악보가 없이 연주되기 때문
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음악PD들
은 악보 없는 밴드음악도 잘 잡아
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아직은 전
문성이 떨어진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영상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에게 도전하기
를 권하고 싶습니다. 음악을 공부
하면 됩니다. 반드시 학교를 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음악목회
를 담당하고 있는 음악목사나 지휘
자들의 도움을 받아 Score Read-
ing을 공부하면 됩니다. 조금만 노
력해도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
예 시도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영
상목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적
으로도 지원해주고 음악목사나 지
휘자들도 보다 나은 음악목회를 위
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훌륭한 영
상목회자를 키워내는 아름다운 역
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망망해봅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담임목사 청빙

미국 동남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주도 콜럼비아에 위치한
콜럼비아 한인 연합 장로교회 (PCUSA)는 39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로, 300여명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MIF#: 23308.AB0)

자격

- 현재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한 신 분
- 정규 신학 대학원 이상 (M. Div.)
-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
- 이중언어(한/영)에 불편이 없으신 분
- 이민 목회 경력 7년 이상 (부목사
경력 포함)

제출

- 보내실곳:
우편: P.O Box 24113 Columbia SC 29224
Email: yhcchang@gmail.com

제출서류

- 한글 이력서 1부 (사진 포함)
- PCUSA PIF 양식 (pcusa.org)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포함)
- 목회비전, 소견서 및 신앙고백서
- 신학교 졸업증명서
- 목사안수 증명서
- 추천서 3명
- 최근 6개월 설교 동영상 2편
(CD/DVD 또는 동영상 주소)

*제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해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1차 선정대상자에게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청빙위원장 장영학 장로 (704)491-8044 Email: yhcchang@gmail.com



콜럼비아한인연합장로교회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1412 Richland St. Columbia, SC 29201 Tel (803) 765-2500 www.kcpcsc.org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영 어 :	목 사 ☐ 평 신 도 ☐	
배 달 주 소			
전 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종, 속, 과, 목, 강, 문, 계! 린네(Carl Linnaeus, 1707-1778)가 이 분류체계의 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그는 생물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서양의 탐험시대(age of exploration, 15-17세기) 동안에 수집된 생물표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처음에는 각 사람마다 그것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렀다. 그러니 새로 발견된 생물이 정말로 처음 발견된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다. 저마다 다른 이름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각 생물에 대한 정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웠다. 이미 한 연구를 또 다른 사람이 다시하거나 사장되어버리는 등의 문제점들이 자주 발생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린네가 현대화된 분류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린네의 획기적인 업적은 생물의 이름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연이어 사용하는 이명법(binomial nomenclature)을 확립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학명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8) 종류대로, 린네와 레이

히브리어로 min'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종류대로'란 교배의 한계를 의미한다. 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고(창1장), 방주에 '종류대로'

이 서로 닮은 점들이 있어 그것들을 서로 비교한 것이었다면 그 자체는 진화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학적인 일이다. 동일한 창조자가 같은 시공간 속에 살아갈 생물

식물과 쌍떡잎식물이 그것이다. 레이 는 종(species)이란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한 과학자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식물의 역사"(Historia plantarum, 1686)에서 그는 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각 개체나 종에서 무슨 변이가 일어나든지, 그것이 한 개의 씨 혹은 한 개체의 식물에서 나온 것이 라면, 그것들은 우연한 변이일 뿐 그 식물을 다른 종으로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다.---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독특한 각 종들은 영원히 특별하게 보존된다; 한 종은 결코 다른 씨에서 튀어나오지 않으며 역으로도 마찬가지이다." 현대 진화론자들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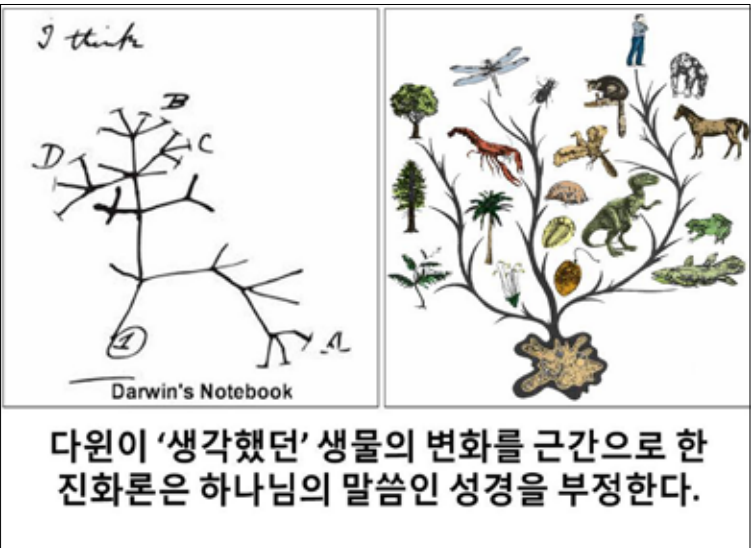
현대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새로운 종(species)이 탄생되는데 이것을 소진화(micro-evolution)라고 부르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진화의 증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변화는 변이(variation)일 뿐 소진화가 아니다. 소진화는 새로운 유전정보

종, 속, 과, 목, 강, 문, 계 생물분류학 만든 린네는 진화론 강력 반대 “소진화(변이) 통해 대진화 이뤄지지 않는다” 1980년 진화학회 결론

은 Homo sapiens라고 속(genus) 이름 Homo와 종(species)이름 sapiens를 이태릭체로 함께 쓰는 것이다. 사람 이름의 경우도, 성이 없고 이름만 가지고 있을 경우 이름이 같으면 두 사람을 구분하기 어렵지만 성이 다르면 더 많은 사람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방식으로 린네는 동물 4,000종과 식물 5,000종 등 총 9,000여 종의 동식물들을 구분하였다. 이 일은 본인뿐 아니라 많은 헌신된 제자들을 통해 가능했다. 그들이 전세계에서 수많은 표본들을 모았기 때문에 체계화되고 일반화가 될 수 있었다.

린네는 종(species)과 속(genus) 이외에도 목(order), 강(class), 그리고 계(kingdom)의 상위의 분류체계를 두었다. 그러나 후에 다른 과학자들은 이 사이에 과(family)와 문(phylum)을 더 넣어 현재 일반적인 교과서에 들어 있는 생물의 체계(종-속-과-목-강-문-계)를 만들었다. 이 체계는 진화론을 한 눈에 보여주는 생명 나무(tree of life)처럼 보인다(그림). 그러나 린네 자신은 진화론을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을 근거로 이 분류체계가 나온 것으로 믿었다(John H. Tiner, For Those Who Dare. Master Books, pp 107, 2002).

린네는 성경의 '종류대로(kind,



실렸는데 그 이유는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으므로(창 7:3, 8:17) '종류대로'가 교배의 한계임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린네가 모든 생물들이 종-속-목-강-계의 체계 안에서 서로 생식적인 연관을 갖는대거나 조상과 후손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종류대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생물은 한 종류인 셈이다.

진화론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모든 생명체들이 한 조상에서 출현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거부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린네가 창조자 하나님의 창조물들

체들에게 부여하신 기능들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과 능력을 볼 수 있는 매우 흥미 있는 일일 것이다.

린네 이전에도 생물분류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존 레이(John Ray, 1627-1705)를 들 수 있다. 그는 18,600 점이나 되는 식물들을 연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식물들에게 부여하신 질서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분류체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씨앗 속에 잎이 한 개인 것과 두 개인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식물을 분류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되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외떡잎

가 소량 늘어난 결과로 발생한 변화를 말하는데 진화론자들이 소진화의 증거로 내미는 것들 중에 새로운 유전정보가 조금이라도 증가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모두 다 변이들뿐이다. 소진화를 통해 진짜 진화인 대진화(macro-evolution)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미 1980년 시카고의 필드박물관에서 모였던 진화학회를 기점으로 진화론자들 스스로 내린 결론이었다.

레이가 보는 세상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증거들로 가득하였다. 그는 "창조 작품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1691)"란 책을 썼다.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인데, 자신을 뽐내며 복잡하게 쓴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단순하고 명료하여 설득력이 있었다. 레이 는 이 밖에도 많은 과학책들을 썼다. 그 책들에는 한결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강조되어있는 것이다. 레이에게 다음의 말씀은 사실이었던 것이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성로교회)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로 가까이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3:5).

광야에서 양칠 때 부름 받는 모세에게 선 곳 거룩한 땅에서 신 벗기를 명령하십니다. 동행은 약속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강하게 종교성을 띤 사람들일지라도 형식은 있을지언정 편안할 때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익숙한 환경 가운데 안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안주하여 속화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편해진 환경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함께 가자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동행으로의 초청입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때 70명이던 이스라엘이 400여년이 지난 후엔 거의 2백만 명이 넘는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났습니다. 요셉의 지혜로운 나라 운영으로 오랜 기근을 넘긴 은혜로 초기에야 손님대접이었지만 요셉도 바로도 죽고 세월이 지나 받은 은혜보다는 군식구가 너무 많아져 위협적인 집단이 되니 저들을 짐작 못하도록 노예로 전락시키고 심히 구박하는 통에 저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유모가 된 친 어머니 요게벳의 품안에서 자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택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왕녀의 수양아들이 되는 바람에 왕자의 신분으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 저들의 하나님은 이름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문화, 종교, 애굽의 삶의 스타일 정서가 오히려 뼈 속까지 배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다운 민족답게 환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제일 먼저 리더로 세운 모세를 하나님의 대표답게 세우시려는 첫 단추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벗으라는 뜻입니다. 자기 신을 벗고 거룩한 주님의 땅을 맨 발로 다리고 그 때부터 함께 일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양 치던 지팡이로 기적을 베푸시며 정병 함께 하실 보증과 더불어 막중한 노예 해방의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왕자의 지위를 벗은 무명의 양치기 광야생활에서 자존감을 밀바닥을 칩니다. 제가 감히 그런 큰 일을 어떻게 해요? 게다가 저는 어눌해서 말도 못해요 등등 모세를 선택한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태를 잘 아시기에 차근차근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 자신을 알려주시고 깊은 관계를 맺어 가십니다.

그 분이 보시기에 준비되신 듯 싶으면 우리 자신이 아무리 나쁜 아인데도, 멸었다고 손을 저어도 40년의 외적인 인간적 재능 자질 훈련이 40년의 겸손한 속사람 훈련 후에 급격히 모세를 사명을 감당하도록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부르실 때 신을 벗어야하는데...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이 내놓을만한 것도 없건만 세상적으로 몸에 밴 것이 많아서 털어 내버릴 쓰레기가 너무도 많습니 다. 자신의 인생관과 능력을 의지하는 세상적 가치관의 눈으로 절대 자신 없는 자신을 내세우며 선뜻 따라 나설지 못하는 모세가 내 자신의 모습이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네 손을 내려놓고 내 손을 잡고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 주께서 인정해주시고 부르시는 것이니... 부르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나를 휘어잡아도... 내 홀로 할 수 있는 것 비록 아무 것도 없지만 주께서 일하시겠다 부르시니 어떤 모양이라도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길 소원하며 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내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며 무너져 내렸던 것을 회개합니다. 스스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저이지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은혜가운데로 자신을 밀어냅니다. 저의 모든 신을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의 발 앞에 맨 발로 나아옵니다. 주 앞에 드러나 주의 일을 시원히 하옵소서. 여호와 닮으!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목회서신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를

사람들의 삶속에는 그들이 기대치 않았던 돌발스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건강하던 몸 에 갑자기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잘 운영하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큰 손해를 입기도 하고 가족들의 생계가 걸려 있는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기도 하고 친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

을 떠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충격을 받고 크게 당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거칠게 쏟아내게 된다. 자신에게 일어난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실존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 것이 다.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에 관한



여승운 목사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진리의 소리는 무익하기 짝이 없는 종교적인 인사치레 정도로 들리지게 된다.

자신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종교적 위안거리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는 당혹스런 사건 앞에서 반응하는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진리 그대로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혹스런 사건 앞에서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금세 마음을 추스르고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된다. 비록 힘든 마음을 가눌 길이 없겠지만 마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자리까지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다.

구약 시대 앗수르가 세상을 호령하던 시절에 유다를 침공해갔다. 침공해가는 과정에 대한 성경의 말씀의 묘사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앗수르의 그런 가공할 만한 기세 앞에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발벌 떨고 있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매우 귀중한 말씀이 있었다. 한글 역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영어역에는 정확히 나와 있다. “See, the Lord, the LORD Almighty” 한글

로 직역하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할 수 있다. 당혹스런 사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주된 이유는 주 만군의 여호와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왜 주 만군의 여호와를 보라고 하는가? 주 만군의 여호와와는 천하에 가장 강하고 위대하신 분으로 앗수르의 군대를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진리를 참되게 그리고 실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생애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고개를 들어 주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보는 자들이 다. 그들의 능력을 보고 그들의 신실하심을 보고 그들의 선하심을 보고 그들의 긍휼을 보고 그들의 자비를 보게 된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절망스럽고 염려스런 사건 앞에서도 결

코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자신을 더 이상 절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행복한 찬양이 콧노래를 통하여 불려지게 될 것이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고, 불의의 어려움을 당하였다 하더라도 주 만군의 여호와로 인하여 “내 영혼 괜찮아”라고 고백하자 그리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듯 주 만군의 여호와와 은혜의 날개에 힘입어 높이 비상하여 올라가자.



HUI 조성환 음악과 학과장, 탐부룩스 박사, 조 그라나 학장

HUI '찬양사역 위한 실제적 리더십' 개설
강사, 세계적 워십리더 탐 부룩스

호프인터내셔널대학교(HIU, 총장 존 데리 박사)가 찬양사역자들을 위한 강좌를 개설한다. 과목은 ‘찬양사역을 위한 실제적 리더십’이며, 강의는 오는 28일(목)부터 12월 초까지 15주에 걸쳐서 진행된다.

세계적인 워십리더이자 새들백교회 찬양사역자인 강사 탐 부룩스 박사는 세계적인 워십팀인 호산나 인테그리티의 전체 프로듀서이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찬양과 경배의 시리즈 편곡자로, 100개가 넘는 크리스천CD앨범 제작했다. 또 미국음반협회에서 인정하는 레코드 1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달성자에게 주는 다수의 ‘골드 엔 플래티넘’ 기록 및 그가 만든 음반과 비디오는 전세계 160개국에서 6천만장 이상이 팔렸다. 그래미와 도브 상 외에도 그가 받은 상은 과히 세계적이라 할 수 있다.

강의를 개설한 본교 음악과장 조성환 박사는 “강의는 기존의 음악 강의와는 다른 새로운 스타일이 될 것”이라 언급하며 “수업 중에 찬양팀과 연관된 많은 이슈와 문제점들을 서로 논의하고, 케이스 별로 실습을 통해 찬양인도자와 악기주자들에게 어떻게 소통하며, 또한 담임목사와 어떻게 동역하는지 등을 현장감을 살려 실감나게 실습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강의를 맡은 탐부룩스 박사는 “학교강의를 보면 음악적 실력을 발전시키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음악적인 부분보다 학생들의 영성 함양 쪽에 중점을 두는 교육도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교육으로 인해 찬양사역자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실력과 영성의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강의는 음악적인 실력향상과 동시에 영성 함양까지 합한 실력과 영성이 겸비된 찬양사역이 될 수 있도록 강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 강의는 HIU 재학생들을 위해 마련됐지만, 특별히 교회와 찬양사역자들을 위해서 청강 신청도 받고 있다. 정원은 50명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청강일 경우 수강료도 일인당 200불로 매우 저렴하다. 또한 교회 혹은 단체로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는 5번째 수강생은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타 학교 재학생이 본 강의를 통해 정식으로 학점을 이수하기를 원할 경우 HIU에서 마련한 소정의 절차 를 거쳐야 한다.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문의는 학과장인 조성환 교수(714-879-3901, ext.1298)에게 연락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GTS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개설

인디애나주 소재 그레이스신학대학교(Grace Theological Seminary 이하 GTS, 총장 윌리엄 카피프 박사)는 지난 5월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의 승인 하에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과정을 개설했다.

경건주의 후예들이 77년 전 설립한 GTS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미국 신학계에 얼마 남지 않은 복음주의 신학의 보루로서 타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와 한국과 미국 지역의 다문화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자를 선도해 나가는 지도자를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신학계에서는 선교학박사학위(Doctor of Missiology)라는 D.Miss 학위를 수여해왔다. 그러나 ‘선교’라는 단어는 18, 19세기 서구 열강으로부터 흑독한 식민지 경험을 한 제2, 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적대적 인식을 주고 있으며, 기독교 적대국이나 아랍권에서는 ‘선교사’와 ‘선교’라는 단어조차 언급할 수 없다.

이러한 면에서 GTS는 선교학 박사과정들을 ‘문화교류학 박사과정’으로 전환해 개설하게 됐다. GTS 측은 문화교류학은 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에서도 강의가 가능하

기 때문에 사역의 범위가 더 확장되게 된다는데, 글로벌 시대에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로 변천해가는 한국과 타문화권 사역자들에게 소개한다고 밝혔다.

GTS의 D.Ics과정에 관심이 있는 자들은 본교 한국학부 김정은 박사(parkrc@grace.edu) 혹은 (574)377-2619(한국어)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그레이스신학교)

푸 / 른 / 초 / 장

(4면에서 계속)

이것을 막아내는 '진리의 기동과 터'(딤후3:15)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요(골1:18), 예수께서 세우시는 '내 교회'(:18)인 것입니다.

3. "내가 복이 있도다"(17-19)

(17-20)"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께서 자신을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를 "복 있는 자"(17)라고 인정하셨습니

다. 이 믿음은 베드로의 육신적 생각이나 배움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17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도 인간의 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증거합니다(엡2:7-8).

그리스도의 교회는 인간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

앙고백 위에 세워집니다(18). 한때 이 '반석'을 베드로로 잘못 해석하여 인간 베드로가 초대교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세번 부인하는 연약한 인간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가 신앙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유약하며 부족하지만 마음으로 믿어 임으로 시인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주님의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위에 천국을 매고 푸는 권세가 위임됩니다. '매고, 푸는' 권세는 랍비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토라 해석에 기초한 행위를 허락하거나(풀다), 허락하지 않는 것(매다)을 선포하는 전문용어였습니다. 예

수께서는 진정으로 말씀(토라)이 되시며(요5:39; 6:68), 그 말씀으로 하늘의 비밀들을 열고 닫는 권세를 그의 몸되신 교회 위에 허락하시며 그의 교회들로 그의 나라를 점점 확대해 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2천년 교회 역사가운데 수많은 답변들이 제기되었습니다. 20세기 들어오면서, 루돌프 볼트만은 예수 제자들의 wishful thinking에 의해 신격화된 예수의 신학적 요소를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마침내, 로버트 펄크와 존 도미니 크로산이 주축이 된 "역사적 예수 연구"(Historical Jesus Seminar)는 1

세기 팔레스틴 지방에서 살았던 예수라는 인물을 있는 그대로 조명해 보고자 하는 방법론들을 제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바로 그 고백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교회 위에 오늘날 하늘의 권세가 주어 집니다. 바로 그 교회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인/터/뷰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박 목사

한인 크리스천문화 정착 노력...문화사역 중요성 인식 시급

“저희 원하트미니스트리를 통해 크리스천 문화가 이곳 미국에 정착이 되어 힐송처럼 영향력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크리스천 문화기획사 원하트미니스트리(이하 원하트)의 대표 피터박 목사는 미주지역의 크리스천 문화가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크리스천문화발전을 위해 원하트가 기여하기 원한다고 말했다.

원하트의 사역은 음반기획 및 제작, 공연기획이다. 특히 금년 1월부터 찬양사역에 중점을 두고 사역을 펼쳐나가고 있다. 최근에 열린 CCM루키 오디션 콘서트는 원하트가 펼쳐나가는 찬양사역의 일환이며, 이외에 HYM청년연합 집회 음향시스템 지원과 남가주한 인교회음악협회 주최 CCM페스티



원하트미니스트리 대표 피터박 목사

은 힘 빠지는 소리들이 더러 있다고 말했다.

“아무래도 한국이나 미 주류교 회들보다 한인교회의 인식과 문화

선의 선교도구입니다”

그는 원하트 같은 크리스천 기획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의 발전은 한사람 혹

CCM루키 오디션 프로그램, 미전역 타 민족까지 확대 계획

벌에 출연자 및 시스템 지원 및 각종 집회 시스템 지원 등 사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LA에 위치한 KCCC 건물 2층(1636 W 8th St)에 있는 원하트미니스트리 사무실에서 미팅을 갖고 있다.

박 목사는 문화사역을 시작하면서 남가주지역의 크리스천문화가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으며 이러한 모습이 그가 문화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남가주는 미주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밀집돼있는 곳입니다. 교회들도 가장 많고요. 한인 교회들을 보면 어린 시절에 접했던 분위기의 교회도 있지만, 현대 트렌드에 맞춰 나가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교회라는 울타리속의 기독교문화는 시너지를 이루지 못하는듯해요. 그것은 교회들간 연합이 잘 안되다 보니 문화사역 역시 활기를 띄지 못한다고 보여집니다.”

원하트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교회들을 방문해 문화사역 및 사역자들이 활성화되도록 후원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다가오는 반을

가 뒤떨어져서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정문제도 한 몫 하는데, 우선은 문화사역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세요. 교회 안에서 문화사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후원요청을 할 때 차라리 아프리카 선교사들에게 선교 후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냐고 하니까요.”

박 목사는 문화사역은 21세기 교회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목회 및 선교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문화사역에 종사하는 사역자들이 문화선교사라고 부를 정도라며, 이는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 다가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건져내는 도구가 바로 문화라고 강조했다.

“특히 젊은 층들에게는 문화라는 도구로 다가가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2-30대의 교회출석률은 매우 저조합니다. 한자리수도 모자라 4%이하라고 하니까요. 그것은 이제 한국은 선교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척박할 정도인 한 인교회들의 문화사역은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닌 붙잡아야 할 최

은 한 단계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으며, 여러 단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요와 팝 시장도 여러 기획사들과 음악인들의 활동을 통해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예를 들면 SM이나 YG같은 기획사들이 서로 경쟁을 통해 한국의 가요시장을 발전시켰고 세계화까지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 문화역시 이제라는 뜻있는 분들이 나서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합니다.”

최근에 열린 CCM루키 오디션 콘서트의 결선무대에 오른 10명의 루키들의 찬양음반을 녹음 중에 있다고 말한 피터 박 목사는 대 상수상자인 이하나 자매를 내내도 한국에서 열리는 CCM루키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시키기 위해 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해는 남가주지역 위주로 대회를 개최했지만, 내년대회는 뉴욕을 중심으로 동부지역 예선도 함께 열게 되며, 미주본선을 LA지역에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CCM루키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시작됐고 올해 4회째를

고 있지만, CCM루키를 통해 발굴된 찬양사역자들 중에서 박정현이나 소향, 김브라이언처럼 대중가수의 길로 가고자 하던 한국의 대중음악 전문기획사에 연결시키는 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박 목사는 언급했다.

15명의 발런티어 스태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피터박 목사는 문화사역을 할 때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장점에 대해서는 사역을 바라볼 때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상담과 기도 등으로 신앙적인 부분을 터치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목사라는 직분이 주는 거리감으로 인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만나게 되는 어색함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2년 한국 순복음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피터박 목사는 ‘쉽지 않은 사역이지만 원하트로 인해 문화사역이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남가주는 물론 미주지역 한인교회들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다.

원하트 미니스트리 문의는 (213)703-7663으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부목사 청빙

뉴욕장대현교회(담임 차바울 목사)가 부목사는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M. Div) 졸업하고 ARPC교단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목회 3년 이상 된 미국체류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이력서(가족 사진 첨부), 목회비전서, 목사안수증명서, 본인 및 가족소개서, 졸업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2부,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 등이 필요하다. 마감은 8월 20일까지. www.jdchurch.org

▲문의: (646)552-4231

영어목사 청빙

시카고 글렌뷰한인교회에서 파트타임 영어담당 목사를 청빙한다. 2세에 대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신학교 졸업자나 예정자로 이력서와 신앙고백서, 목회비전서를 보내면 된다. 마감은 8월 20일까지. 이메일: gkcc1152@gmail.com

▲문의: (847)962-8951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2014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모자격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거나 다음 자격을 갖춘 학생.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전공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 대학(원) 재학중 현재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8학점 이수, 학부는 15학점 이수 평균 GPA B 이상. 선발인원은 총 12명 각각 1500달러 지급. 신청서(www.NLChicago.org), 신앙간증문 및 비전서(2페이지 이하), 답입/지도 목사, 지도교수 추천서 2부,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마감은 10월 15일.

▲문의: (847)359-5200

엘피스찬양선교단 사역자 모집

뉴욕에서 활동하는 엘피스찬양선교단(단장 김정길 집사)이 찬양과 예배 사역을 위한 각 부문 사역자들을 찾고 있다. △찬양팀: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 작곡 등 다양한 악기 및 보컬 △미디어: 사진, 영상, 음반제작, 음향사역, 문서편집 및 디자인 작업. 홈페이지 www.elpiswpm.org

▲문의: NYDIGITAL@GMAIL.COM

반주자 청빙

뉴저지 성도교회(담임 허상희 목사)에서 반주자를 찾고 있다.

▲문의: sheo1004@hotmail.com

찬양사역자 청빙

알칸사주 리틀락시에 소재한 알칸사제일장로교회에서 찬양사역자를 청빙한다. 이메일: sungkidon@hotmail.com

▲문의: (501)554-5772 성기돈 장로

미동부지역 2014 북미원주민선교 출발

“주님의 지상명령 멈추지 않을 것...”



북미원주민선교 출발에 앞서 버스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참가자들의 기도가 간절하다.

2014청소년할렐루야대회 9월 5, 6일

“#Rise Up NYC” 주제, 강사 샘 최 목사

할렐루야청소년대회가 9월 5일(금)과 6일(토) 오후 7시 뉴욕장로교회(담임 이승한 목사)에서 열린다. 뉴욕장로교회는 2006 청소년대회 후 8년 만에 장소를 제공했다.

강사는 샘 최(Sam Choi) 목사로서 뉴저지베다니연합감리교회의 영어권 워십디렉터. 영어권과 유스 워십 디렉터인 최 목사의 강점은 예배다. 파워풀한 말씀과 찬양인도, 기도가 강력하며 청소년들과 같이 호흡한다. 특히 올해에는 뉴욕일원에서 활동 중인 필라델피아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한다.

올해 청소년대회는 예년의 여러 부속적 프로그램보다는 예배에 집중한다. 따라서 이사가 60:2-3절을 바탕으로 한 “#Rise Up NYC(뉴욕이여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예배에 집중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받은 은혜로 인해 어디서나 크리스천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



고 있다.

이번 청소년 할렐루야대회는 뉴욕청소년센터(AVC) 공제구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뉴욕청소년사역자네트워크(NYMN) 사역자들이 기도하며 대회를 준비해왔다. 성인대회를 능가하는 뜨거운 성향 속에 열리는 청소년대회에 많은 부모와 1세대의 참여와 기도가 요구되고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회장 김승희 목사)이 후원하는 2014년 북미원주민선교가 지난 3일 출발해 북미전도에 나섰다.

교단을 초월해 미동부지역 연합으로 이뤄지는 북미원주민선교는 그동안 뉴욕에 일원화 돼있던 운영을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DC, 보스턴지역으로 나눠 훈련을 하고 선교는 연합해 진행된다. 각 지역 연결은 북미원주민선교 김동성 선교사가 컨트롤했다.

김동성 선교사는 “지난 1997년 캐나다에서 2개 교회 연합으로 17명이 원주민보호구역 한 곳을 대상으로 펼쳤던 선교가 올해는 700여명이 참여한다.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된 하나님의 큰 역사다”라며, “하나님은 미주지역 한인교회를 사랑해서 미국 교회가 못하는 일주민선교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것으로 매년 원주민 선교를 통해 2세들에게 큰 삶의 변화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뉴욕교협이 계약한 더글라스톤 61애비뉴 244가 코너 중국교회 전경

뉴욕교협 더글라스톤 건물계약

61애비뉴 244가 코너, 190만 달러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가 새로운 건물구입 계약을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김승희 회장과 이재덕 부회장은 지난 7월 16일 오후 관련 변호사 임회하에 건물매매 계약을 마쳤다.

건물 위치는 더글라스톤 495 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메시 백화점과 더글라스톤 골프장 뒤편 길 61애비뉴 244가 코너에 중국교회가 영어권 학생들을 위해 사용했던 건물이다.

매매 가격은 190만 달러(시가 230만 달러)로 유니온스트리트에 위치한 기존 건물매매 잔액 130만 달러와 청소년센터 건물 매매잔액 35만 달러를 합산한 160만 달러로 계약을 성사시켰으며 클로징 비용을 포함 40만 달러는 은행대출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건물주변은 대체적으로 조용한

뉴욕에서 200여명, 뉴저지 150여명, 워싱턴 100여명, 보스턴 50여명 등 700여명의 평신도 선교사들이 북미주원주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원주민 대상지역은 미네소타 5곳, 위스콘신 7곳, 미시간 2곳, 뉴욕 1곳 등 총 15곳 지역 대상으로 워싱턴스, 국악 찬양 연주, 부채춤 등 다양한 문화공연선교와 BBS 등 성경교육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한다.

한편 뉴욕지역 파송예배는 지난 27일 저녁 뉴욕어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드려졌다.

설교에 나선 뉴욕교협 회장 김승희 목사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본문으로 “따로 세우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공적인 선교를 당부했다.

김승희 목사는 “평신도선교사 파송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주님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뉴욕지역 교회들은 끊임없이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 오늘도 북미원주민을 위해 특별히 세운 모두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유원정 기자)

온두라스 단기선교위한 선교디너

온두라스 단기선교를 위한 선교디너가 지난 3일 저녁 뉴욕에버그린장로교회(담임 문덕원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선교디너에는 OSF 재즈밴드(리더: 설행수 집사)를 초청, 공연과 함께 만찬을 제공했다.

이번 온두라스 선교는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한 주간동안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in Ur-

raco Honduras(황충렬, 황명옥 선교사)에서 “여름 영어성경 캠프”를 진행한다.

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이 영어성경캠프는 이번엔 에버그린장로교회 13명, 뱅행턴침례교회 17명, 뉴욕미드허드슨 감리교회 팀 6명 그리고 한동대학교 선교팀 8명 총 44명이 연합해 참가하게 된다.

이노비, 은빛앙로원 찾아 무료음악회

비영리단체 이노비(대표 강태욱)가 지난 24일 뉴저지의 은빛앙로원을 찾아 무료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리릭 소프라노 윤혜린, 테너 이성은, 플루티스트 오은지,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지, 이노비 뮤지컬디렉터 김수진이 참여했다.

이날 아리랑, 희망의 나라로, 오솔레미오, 아메이징 그레이스 등 가곡들과 친숙한 클래식 음악으로 어

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공연이 끝나고 한 어르신은 “평소에 듣기 힘든 동요와 가곡을 들을 수 있어 고맙 생각이 났다”며 기뻐했다. 이날 공연에는 이노비 주니어 발레티어 박유나 양이 연주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공연은 조파운데이션 후원으로 진행됐다.

▲공연문의: (212)239-4438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8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성경: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5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 어 예배: 오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새 벽 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7-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h@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배: 오전 10:30 영 어 예배: 오전 10:45 수요기도회: 오후 8:00 금요성경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 Fax.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770 45-50 162 St., #2F,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ell.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 (718)279-2757, 2758, Fax. (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WM 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718)639-3021, Fax. (718)507-6376 71-0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1-17 State St., Jersey City, NJ 07310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턴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립일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성경예배: 오후 12:30 주목회자찬양예배: 오후 12: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 찬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1-57 104 St., Flushing, NY 1135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org Tel. (516)333-1573, Fax.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6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8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에사랴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 (718)787-8999, bonhree@hotmail.com 70 Plande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q.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pvapk@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ULISTA-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mkr@hotmail.net Cervantes No., Antio, Asuncion-PARAGUAY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ucu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7-9230,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ULISTA-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영,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mkr@hotmail.net Cervantes No., Antio,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전세계 한민족이 부를 노래...

세 목사 ‘코리언의 노래’ 부르기 운동 전개

3명의 목회자가 남북한을 포함 전 세계 흩어져 사는 8천만 한국인들이 함께 부르는 ‘코리언의 노래’를 제정, 보급하고 이 노래가 한민족의 노래로 불려지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7월 31일 정오 JJ그랜드호텔에서 있었다.

이정근 목사(미주성결대 명예총장)는 “코리언의 노래 보급협회를 지난달 창설하고 백경환 목사(기독합창단 단장)와 김삼도 목사(엘바인 할렐루야교회 담임)와 함께 이 운동을 하게 됐다. 이 곡은 국적과 종교, 이념, 세대를 뛰어넘어 코리언의 피를 가진 남·북한과 해외에 사는 한인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목사는 “가사 내용은 기독교적 가치와 보편적 가치를 조화시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수많은 수난을 당해왔지만 무궁화처럼(1



코리언의 노래의 노랫말을 지은 이정근 목사가 코리언의노래 부르기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절), 민들레처럼(2절), 진달래처럼(3절) 굴하지 않고 깨끗하게 다시 일어나는 용기와 도전정신, 희망 평화 사랑을 온 세상에 심는 결의를 담은 노래라는 설명이다.

이 목사는 지난 1989년 북한을 방문했을 때 남북한이 함께 부르는 노래들(나의 살던 고향은, 갈매리와 갈순이, 울밑에 선 봉선화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등)이 있음을 확인

하고 전 세계의 모든 한국인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코리언의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이번 코리언의 노래가 탄생하게 경위라고 언급했다.

코리언의 노래를 작곡한 백경환 목사는 “곡을 의뢰받고 가사를 맡아가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다”고 말하며 “곡 작업을 하면서 우선은 코리언이라는 정체성을 나타내



교회 창립 제16주년을 맞이하여 전 교인들이 축제의 날로 정하고 감사예배를 드리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지석 목사의 저서 ‘한 길을 가려무나’ 출판감사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 길을 가려무나’ 출판감사예배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임지석 목사 저서

나성세계로교회 담임 임지석 목사의 저서 ‘한 길을 가려무나’ 출판감사예배가 지난달 31일 오후7시 나성세계로교회 예배당에서 열렸다.

김동원 목사(월리웃 효순장로교회)의 사회로 시작된 출판감사예배는 정장수 목사(올림픽장로교회)가 기도, 김숙영 교수(대한신학대학)가 특송을, 송정명 목사(월미션대학교 총장)가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출17:14)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 박신욱 목사(미주복음방송 사장)가 축사했으며 임수정 사모(나성세계로교회)의 작품낭독 시간이 있었다. 이어 임지석 목사가 인사말을 했으며 강승재 목사(CRC 교단 원로)가 축도했다.

임지석 목사는 1982년 전북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도미해 1986년 UC Riverside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재정 분야에서 사업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는 노래인만큼 대중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그래서 찬송가와 가곡, 그리고 유행가의 스타일은 피해야겠다는 생각했다. 모든 국민이 쉽게 부를 수 있는 국민가요 스타일로 작곡했으며 곡 작업은 2주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됐다”고 말했다.최재영 목사(액션포원코리아)는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의 정세에 대해 알고 있다. 남북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북에서 싫어하는 용어는 피해야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남한 북한이라는 단어다. 그리고 북에서 사용하는 남조선 북조선이란 단어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어다. 따라서 남과 북이 공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을 해야 하는데 코리언의 노래 가사가 여기에 걸맞게 만들어진 점이 좋다. 또한 멜로디 역시 한국은 물론 북한 주민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는 느낌을 준다. 코리언의 노래 보급으로 남과 북 화합의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949)514-4346/김삼도, (626) 636-1144/이정근, (213)210-3283/백경환.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서울영락교회 찬양대 미주 순회공연

서울영락교회(담임 이철선 목사) 호산나 찬양대가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미주순회연주공연을 갖는다. 광복절기념음악회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에서는 헨델의 작품 “the Anthem on the Peace”를 유시해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영락교회 호산나 찬양대는 성악전공 대학생 1백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매 2년마다 해외순회공연을 하고 있다. LA지역은 15일(금) 오후 8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17일(주) 오후 12시30분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오후 5시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에서 각각 공연을 갖는다.

▲문의: (714)446-6200

부부사랑되찾기 세미나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는 바이올라대학, 탈북신학교 원로교수이고 결혼과 가정사역의 대가인 노만 라이트 박사를 강사로 초청, ‘부부 처음사랑 되찾기’ 세미나를 8월 16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개최한다. 등록비는 30달러(부부 50달러, child care 1인당 10달러).

▲문의: (714)345-7231

제1회 크리스천 아티스트 컨퍼런스

기독교 예술 연구소인 CBF(Center for Beauty and Faith)가 주최하는 ‘제1회 크리스천 아티스트 컨퍼런스’가 9일(토)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사데나장로교회(585 E.Colorado Blvd)에서 열린다. ‘B.O.A.T(Beauty of Art & Truth)’라는 주제로 열리는 컨퍼런스는 각 예술 분야에서 몸담고 있는 크리스천 또는 문화사역을 꿈꾸는 사역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등록비는 10달러.

▲문의: medialee68@gmail.com (이도환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2014 한여름밤의 은혜집회 II

글로벌선교교회(담임 김지성 목사)는 ‘2014 한여름밤의 은혜집회 II’를 15일(금)부터 17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박효진 장로(소망교도소 부소장). 일정은 15일 저녁 8시, 16일 새벽 6시와 저녁 7시, 17일 1-3부 예배시간에 열린다.

▲문의: (909)396-4441

한인가정상담소 학용품 후원자 모집

새학기 한인 포스터 케어 아동 100명에 제공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조)는 한인 포스터 케어 아동들을 위한 개학맞이 책가방 및 학용품 후원 캠페인(Back to School Backpack Drive)을 실시한다. 기간은 8월 1일부터 21일까지. 한인가정상담소에서 이번 Back Pack Drive를 통해 1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할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 방법은 △초등학교 아이들

이 사용할 수 있는 책가방(back-pack), 학용품(school supply)을 직접 구매해 한인가정상담소로 전달 △한 아이가 개학 후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는 50달러 체크를 한인 가정성담소(KFAM) 앞으로(Pay to the order: KFAM) 쓰고 메도란에 Backpack Drive라고 적은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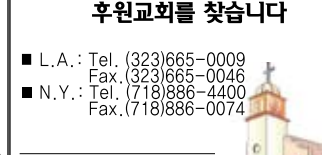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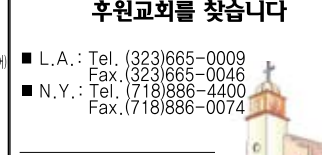
한인가정상담소는 지난 1월, 한인 포스터 케어 프로그램을 알리는 “동지 찾기” PSA(공익광고) 캠페인과 포스터가정 모집 성공회로 출해 해 지난 26일 16명의 PS MAPP교육과정 수료 등 현재 여러 단계에 걸쳐 아동보호국(DCS)에 소속돼 있는 포스터 아동들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다.

▲후원문의: Estee Song, es-ong@kfamla.org, 1-844-532-6459

(기사제공: 한인가정상담소)



한인가정상담소 Back to School Backpack Drive 배너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영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a.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벽 기도: 오전 6:00(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1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10 (Holywyo: 영양예배) (KDC: 한국교회) 주일학교: 오전 9:10 주일4부 예배: 오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웅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323)483-6625, Fax: (32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례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양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학교: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환 팩스 전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월 은 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전 11:45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www.mpcal.org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주일예배 5부: 오전 11:00 대형찬양예배: 오후 1:00 일일예배: 오후 1:00(수요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San Juan Capistrano, CA 9267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차교회 담임목사: 장세정 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대 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찬양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7:3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6:30(토)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h.org Tel: (562)800-8800, Fax: (562)665-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새천양교회 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vong@gmail.com Tel: (714)826-0100, Cell: (714)844-8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양 1부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5:30(월-토) 새벽 기도회: 오전 6:00(토) www.irc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9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6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로교회: 3655 24th St, L.A. www.gracemc.org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수 요 (요양) 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lv.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양)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양예배: 오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c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mission 선교의 창 (13)

이슬람의 성장과 기독교의 대책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2014년도 이슬람의 라마단이 끝났다. 저들은 지난 한달 동안 세계도처에서 해가 있는 동안 금식하며 하루에 5번씩 기도회를 가졌다. 모두가 메카를 향해 동시적 절을 한 것이다. 15억 이슬람이 매일 5회씩 한 달을 계산하면 총 2,250억 번이나 된다. 양 낱의 칼을 간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한 저들에게 거칠 것이 있을까? 그래서 저들은 폭탄을 품에 지고 불나방처럼 뛰어들곤 한다. 이에 비하면 기독교는 너무나 안일하며 개체적이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10년, 30년 후에는 어떠한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 물론 우리 기독교회는 개 교회적으로 많은 행사와 사역으로 분주하다. 하지만 대외적으로는 제대로

날 약 5,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유럽 인구의 7%에 달했다. 2015년에는 14%, 2025년에는 20%에 이를 것으로 보는 자도 있다. 중동이 과거에 기독교 지역이었으나 오늘날 이슬람권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유럽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가? 정도의 차이 일뿐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저들의 성장과 급진적 도전을 이해하며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슬람의 성장 원인 첫째는 이민이다. 이슬람의 시작은 '헤즈라'라고 불리는 이민에서 시작한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그가 태어난 메카에서

다 단순한 행동을 강조한다. 라마단의 금식, 성지순례, 그리고 매일 동시에 한 줄로 서서 절을 하게 하는 규율은 인간을 자극하게 하며 동지적 결속을 유발한다. 다섯째는 입체적 포교이다. 이슬람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가 하나로 병합되어있다. 따라서 포교활동도 힘이 있다. 저들은 오일달러를 매체로 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를테면 이슬람 대학이나 기관 등을 세워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 엄청난 장학금을 준다거나 아랍권에 유학주선 하는 일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송이나 인터넷을 통한 포교 등 다양하고 점진적인 활동을 펼친다.

을 경시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 가장 확실한 대응은 결혼을 통한 출산장려와 그리고 자녀들을 선교의 재원으로 키우는 일이다. 셋째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적 사역을 펼쳐야 한다. 힘은 통일하며 집중할 때 나온다. 각자 개 교회라는 울타리에 갇혀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 기존의 영혼구원, 제자훈련, 교회개혁 사역 이외에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할리우드 영화계, 전자게임, SNS, 스마트폰 등 현대 청소년들 다수가 포로로 잡혀있는 영상문화까지 다양한 장르로 선교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특히 이슬람을 비롯한 여러 이단들에 대한 장단기적 대책을 수립하고 기독교회가 통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다. 개체적인 일 때문에 전체적인 쟁점을 소홀히 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하다. 이슬람은 소리없이 야금야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독교회는 깨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화력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세상은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 질병 그리고 이슬람과 수많은 이단들의 득세로 편할 날이 없다. 세상을 개혁하고 선도해야 할 우리 교회들은 과연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왕적 도래를 위한 연합적 역할은 무엇인가?

타산지석(他山之石)

지금 유럽은 이슬람에 대한 말 못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유럽에서 이슬람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였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남자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다. 전쟁의 폐해를 재건하기 위한 많은 인력이 필요로 했다. 이에 값싼 노동력의 이슬람 인구가 유럽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민자들은 초기에 사회 최하층 근로자들이었으나 점차로 유럽사회에 적응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문화와 종교가 자연스럽게 유럽문화 속에 스며든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은 '이슬람 - 포비아 (Islamophobia)'를 넘어 '유라비아(Eurabia)' 공포로 확산돼가고 있다. FIM대표의 통계에 의하면 1970년에는 720만 명에서, 1990년에 1,300만 명으로 그리고 오늘

박해를 받자 AD622년에 약 430 킬로미터 떨어진 메디나로 추종자들을 데리고 이민을 가게 된다. 따라서 AD622년은 이슬람의 원년이 된다. 이슬람의 성장은 언제나 이민에서 시작한다. 둘째는 다산이다. 무하마드가 마지막 설교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슬람을 번성케 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슬람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며 최대 4명의 부인까지 둘 수 있다. 또한 이슬람 여성은 산아제한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습이 이슬람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 이슬람 여성들은 전 세계적으로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다. 셋째는 결혼이다. 코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독신을 허락하지 않으며 무슬림 남성과 결혼해야 한다. 그러나 무슬림 남성의 경우에는 무슬림 여성 혹은 성서의 백성 즉 유대인, 기독교인과 결혼할 수 있다. 이슬람에서는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도록 돼있다. 따라서 기독교인 여성과 결혼을 한다 해도 그 자녀는 무슬람이 된다. 넷째는 실천적 신앙이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종교적 규율이 현대 상황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 계율들을 적극적으로 따른다. 사변적인 교리보

기독교의 대책

위에서 우리는 이슬람의 성장 원인을 살펴보았다. 우리 기독교회는 저들의 행태대로 일일이 맞대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저들의 전략을 숙지하고 역으로 선교적 도전을 해야 한다. 첫째는 한 국가나 미국 등 우리 곁으로 다가온 저들은 좋은 선교의 기회이다. 사실 이슬람권 나라에서는 쉽게 복음을 선포할 수 없다. 위협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 와 있는 저들은 자유로움과 스스로 객관적 실태를 비교해볼 수 있는 문화 환경이 된다. 현재 미국에는 약10-15만 명의 아랍권 유학생들이 있으며 한국에도 많은 아랍권 청년들이 몰려오고 있다. 둘째는 기독교인의 자연적 성장이다. 현재 유럽 여성들의 인구증가율은 마이너스 0.25%에서 0.7%이다. 한국도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하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체 인구의 약 14%(643만 명)를 수입해야 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매년 약 30만 명의 이민자가 들어오는 나라가 되었다.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고 있다. 인간이 자기편리와 쾌락을 위해 결혼과 출산

일적으로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맺는 말

이슬람이 눈을 부릅뜨고 달려오고 있다. 누가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911테러를 일으켰는가? 지난해 4월 15일 누가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폭탄테러를 일으켰는가? 누가 지금도 여기저기서 자살테러를 감행하고 있는가?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고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음에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대내적인 사역에만 몰두해도 되는 것인가? 사실 통계는 내보지 못했지만 지난달 라마단 기간에 영적으로 깨어 맞대응한 기독교회는 얼마나 될까? 여기저기 설교나 기도제목들을 볼 때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진정 덜 중요한 일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다. 개체적인 일 때문 전체적인 쟁점을 소홀히 하는 것 또한 지혜롭지 못하다. 이슬람은 소리 없이 야금야금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기독교회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방지일 칼럼 (51)

“본대로 들은 대로”

카리보다 질소를

나는 농업에 상식이 있는 것은 아니라 곡식이 웃자란다는 말을 들었다. 질소비료를 어릴 때에 뿌려주면 웃자라기 쉽다는 것이다. 키가 자란다. 잎이 무성하게 자란다. 땅의 힘을 이 자라는데 다 뺏겼다 할 것이다. 웃자라는 곡식이 허약하다. 또 너무 갑자기 커서 바람에 쓰러지기도 한다. 적당한 질소 비료로 자라게 하고는 카리비료를 뿌려야 열매 맺게 하는 힘이라 함이다. 농토를 돌아보면서 하는 말을 들곤 했는데, 저 논은 질소를 과히 뿌렸는데, 저 밭도 그렇군. 저렇게 되면 급년 소출은 얼마 안될 터인데... 하는 상식 있는 분들의 탄식을 들었다. 카리보다 질소를 더 하면 이런 현상이다. 그 비례를 적당하게 하여야 자라기도 하고 열매도 거두게 된다 함이다. 근자에 교회 성장에 대한 한국 교역자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성장 세미나가 있다면 국내건 국외건 가려고 한다. 성장학의 연구가 깊은 교수들이 있어 풀러신학교 성장학의 권위자가 모교 교수니 그대로 하면 교회는 자란다고 한다. 모모는 대형교회의 꿈이 커서 다투어 기지를 크게 마련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분당 일산 신도시에는 대형교회가 즐비할 것이라고 한다. 유명한 목사들의 설교 테입을 다 가져다가 분석하면서 설교를 구상한다는 말도 들었다. 노력하는 그 대가는 있거 마련이겠다.

성장에만 치우치는 그 목회철학에는 웃자람이 첫 목표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질소 비료 공급에만 급급해진다. 청초가 보기 좋게 자라는데 흐뭇함이 있거 된다. 비질을 쓰는 것이 아니라면 웃자라는 것은 비질에 영양을 공급하는 일이다. 곡식을 심는 것은 그 소출을 위해서이다. 적당하게 자라야 하려니와 벼 대(줄기)가 든든하게 자라나서 꽃피고 열매가 알차게 맺어야 한다. 이삭도 이삭 나뭇잎이라 벼알이 총총하게 박혀들면서 그 알 수가 많고 또 알차게 영글어야 소출이 많아진다. 청초는 그렇게 눈에 보기 좋았는데 열매에 결정적 요소가 되는 카리가 부족했다. 열매 맺는데 힘이 없게 되니 벼 짚은 쓸만하게 키도 크고 잘됐다 하겠는데 비질을 위하여 농사하는 사람은 없다. 열매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알차게 영글지 못하면 같은 수량이지만 탈아보면 영근 벼와 크게 차이가 난다. 알차게 영글지 못한 벼는 쌀이 또한 많이 나지 못한다. 정리해보면 쌀재료가 많이 나니 쌀의 등급을 매기면 하등으로 내려가서 웃자라게 한 논 농사는 실패라 흉작의 낙인이 찍여진다.

물량에만 치우친 목회가 이렇게 되지는 아니하는가, 이를 성찰하는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작농을 영위하는 것은 소출을 알차게 거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다. 곡초를 좋게 얻으려 함은 아니다.

총동원 주일 운하여 여러 달 전부터 광고를 하고 한사람이 몇 사람을 직접 보고를 하게하고 대단한 운동도 때로 눈에 띈다. 그 통계에 만이 넘게 새로 왔다는 통계로 교인들은 그 정한 이를 위한 투자도 많이 했다는 후문이다. 몇 번 식사 초대와 하고 선물을 보내고 어느 주일에 꼭 약속을 했다. 그날 어김없이 나왔다. 이런 수량이 만이라 수량으로 성공 훈한 흥분을 가졌으나 그 결과 흥분으로 그치고 만 예도 있다. 이런 웃자람을 하게 된다. 질소만 뿌려 웃자라게 했다면 열매는 없다. 있다고 해도 한 이삭에 몇 알이 못 달린다. 그 달린 벼도 알차지 못한 쪽정리로 쌀은 하등 쌀이 될 뿐이다.

이제부터는 질소비료, 카리비료를 적시 적량 공급을 하여야 하리라 본다. 열매 없는 웃자람을 지양하여야 한다. 청초는 나지막하게 자라되 탄탄하게 자라게 한 후에 카리비료를 적당하게 주면 그 결실은 기대 이상이 되어진다. 거기 일조(日照)가 좋아야 결실이 된다. 일조는 기후가 가을날에 좋아야 하루의 구름 없는 햇살엔 벼가 몇 천 가마니가 매일 불어난다고 한다. 위에서 베푸신 은사라 하겠다. 목회는 내 할 본분, 뿌리는 노력도 있겠거니와 일조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례가 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로서 알차게 단장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함이 목사들의 일이겠다. 질소비료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카리 질소의 비례를 바로하고 일조를 기다린다.

〈1999년, 3권〉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뱌모섬 (바울의 진도에 따라) 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MISSION VISION TRIP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8쿠바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8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 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 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〇표시를 하세요	



선교 펴기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상기운입니다. 우기임에도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미 농작물의 피해가 상당합니다. 감자와 채소 농사가 수확을 하지 못하고, 옥수수 농사도 흉년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미 주식인 옥수수의 가격이 급등 했고, 수입하고 있는 프리홀레스(팥)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본격적인 단기선교의 계절입니다. 7월에는 시카고 베들레헤교회에서 오셔서 렌카마을교회에서 의료선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약 800여명의 환자들을 진료하셨습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온 정성 다하여 세심하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이어서 시카고 한미장로교회에서 오셔서 다섯 마을을 방문하여 거의 1,400명의 환자들을 진료했습니다. 테구시갈파에서 치과의사 선교사 Breandon이 와서 두 주간을 섬겨주셨네요.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팀 모두 감탄을 하였습니다. 정말 신실한 사역자입니다. 지금은 와싱턴중앙장로교회 고등부(JG)와 서울 사랑교회 대학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24일) 저녁에는 “깊은 산속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사랑의교회 팀과 중앙장로교회 학생들 그리고 렌카마을교회 찬양 팀과 겨자씨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여 아름다운 하모니의 은혜 깊은 찬양 음악회였습니다.

단기선교가 전략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도록 세심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없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학교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그리고 의료선교를 통하여 마을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움이 트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선교사의 가슴과 손이 하나님의 가슴과 손이 되어야 함에도, 선교사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설록 흙즈와 같이 탐정의 눈으로, 냉랭한 가슴으로 변하는 모습에 저 자신도 놀라곤 합니다. 은혜 넘치는 사역자가

리를 낳았네요. 이제 줄줄이 풍성한 새끼들을 낳을 예정입니다. 축복을 전하는 사역(Passing the Blessing)으로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전 우리 집 개가 곤잘로 가정에 분양한 암양을 두 마리나 죽이는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토끼와 닭들이 울들어 많은 번식을 하였습니니다. 감사하지요.

해주시는 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에 감사드립니다. 8월과 9월에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자꾸알교회, 몽케카구아 교회, 에스페란자교회, 셀롬교회, 뿌에블로 비에호교회, 까스타노 교회, 세이비타교회, 몬테베르데 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지역에 교회 개척 및 예배당 건축(Pueblo Viejo)을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헌당하도록

-교회 건축(아마랑길라, 리오 콜로라도) 및 건축 예정지를 위하여

3. 학교 사역

-방과후학교 겨자씨학교 아자꾸알과, 겨자씨학교 몽케카구아를 위하여

-산페드로솔라 푸엔테데 루즈 학교를 위하여

-정규 학교인 Christian Bilingual School(기숙사학교) 시작을 위하여

4. 목회자 훈련 및 미래 지도자 양육

-목회자 훈련으로 현재 SEAN 제 2권 과정

-멕시코 유학: 2015년 8월에 Olvin과 Joel을 멕시코 올네이션 신학교(후아레스, 이상원 선교사)에 유학을 보낼 예정입니다. 모든 입학절차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5. 강해설교학교: 많은 목회자들이 훈련 받고 말씀 사역에 힘을 얻도록, 강의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도록

6. 여름 단기선교팀(열린문장로 교회, 뉴욕선교회)을 위하여

7. 동역자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Myer 형제, Dario 형제, Miriam 선생, Brenda 선생, Olvin 형제, 암부로시오 형제, 디오니시오 형제).

장세균 선교사 드림
segyunjang@gmail.com



저는 단기 선교팀들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은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현장에 살면서 이곳 아이들의 과거(전력/前歴)를 알기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집사님들을 보면서 바로 이 모습이 하나

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베들레헤교회에서 아자꾸알과 “Passing the Blessing” 사역으로 돼지들을 기증해주셨는데 이제 세기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아랫마을 빅토리아네 가족이 8마리를 낳고, 놀만데 돼지는 4마



마무리 되었습니다. 헌당예배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셀롬교회 목사관 공사가 시작과 함께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27일) 오후 4시에 아마랑길라 교회 건축을 위한 기공예배를 단기 선교 팀과 함께 드렸습니다. 후원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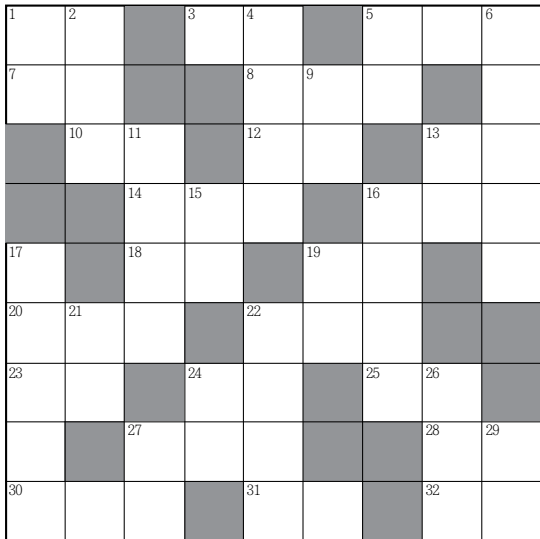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교회 사역

-중미 ACM(Alianza Cristiana y Misionera)와의 연합 사역을 위하여

십자말 • Cross Word (47)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1. 금으로 만든 잔(에1:7).
3. 앗수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이 나오는 유목민인데 디그리스 동편에 산 백성인 듯(겔23:23).
5. 금을 생산했던 곳(렘10:9).
7. 게르손 자손 시므이의 아들(대상23:10).
8. 쇠갈비의 뼈대(욥40:18).
10. 물건을 사는데 쓰는 돈(출38:24).
12. 눈썹위의 넓은 부분(삼상17:49).
13. 갖추지 않은 곳을 더하고 허름한 곳을 기움(느4:7).
14. 아시아인으로 진신한 집사요 바울의 친구(딤후4:12).
16. 롯을 아내로 삼은 다윗왕의 증조부(룻2:23).
18. 요나단의 둘째 아들(대상2:33).
19.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금(아5:11).
20. 헬라인과 로마인이 봉사하는 여신(행19:28).
22. 도리에 어긋난 사람(시101:3).
23. 아셀 사람(대상7:37).
24. 스승을 높이어 이르는 말(명).
25. 끈, 띠 모양의 물건인 총칭, 마리에 빨간 OO을 맨 소녀.
27. 예루살렘 서남 10킬로 지점에 있는 산(아2:17).
28. 진흙으로 만든 그릇(레 6:28).
30. 헤벨의 아들(대상7:32).
31. 섬의 손자요 아담의 아들(창10:23).

32.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에1:1).

<세로 푸는 열쇠>

1. 이제, 지금(삼상9:13).
2. 원숭이(대하9:21).
4. 고린도교회 신자. 에베소에 가니 바울이 반가워했다(고전 16:17).
5.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대상9:4).
6. 바사의 총독(스 5:3).
9.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전했던 곳의 하나(민33:18).
11. 머리는 용, 꼬리는 뱀(고사성어).
13. 소바의 아들(대상7:36).
15. 사실을 적용. 또는 그 글(시77:11)
16. 포근하고 아늑한 집(잠27:8).
17. 마아가 사람의 아들(왕하25:23).
19. 올바른 길(대하27:6).
21. 바울의 제자였는데 세상으로 나감(딤후4:10).
22. 북한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였으면...(행27:38).
24. 아시아 일곱교회 중의 하나가 있던 곳(계3:4).
26. 그 땅에서 원래부터 살던 사람(출12:49).
27. 수엘라의 아들(창7:20).
29. 하나님과의 대화(창20:7).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31)529-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r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3부예배: 오후 7:00 새벽4부예배: 오전 5:00 금요일아침기도: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기도광주시 북구 율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형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침양예배: 오전 11:00, 7:00 수요침양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로마교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2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을 위한 헌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석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9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5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82)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곡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시 영통포구 신길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1 29(삼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전 1:30 주일6부예배: 오후 3:00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동 제1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암동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시 이촌동 302-67 (140-03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의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삭이 모리아산 제단위에 올리웠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다” 마침내 이삭은 제단위에 묶여 있던 밧줄에서 풀려나 제단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5년간의 묶여있던 과부의 밧줄을 이제 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눈물이 펄펄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억울함과 슬픔 황당함의 눈물과 함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홀로 지내는 5년 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오는 눈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눈물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제 너의 앞길에 이삭에게 주신 축복을 주리라 내가 가는 길에 막혀 있는 우물들이 터지는 축복을 주리라” 약속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요? 과거에 입었던 옷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요?” 고민하며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눅2:38 마리아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 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눈 녹듯 사라져 버리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결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둘이는 서로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남편도 놀라고 저도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으면 이런 것쯤이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자책하면서도 또 다시 서로 다른 부분 때문에 불편하다고 아우성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까지 되었습니다. 다시 알게 된 것은 5년 동안 혼자 생활하면서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결코 내가 거룩해져서가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자극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

9.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인격 가꾸기(2)

사랑은 오래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13:4-7). 여기에 소개되는 성품은 곧 주님의 성품을 말해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저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상관없는 경건의 모양이나 경험은 다 거짓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필자는 사별 후에 홀로 있는 5년 동안 화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예수를 오래 믿고 열심히

잘하려고 애쓰고 긴장하는 사이가 아니라 실수와 허물 덮어주며 받아주는 부부돼야

히 기도를 하면 이렇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홀로 서기하는 것이 무척 힘이 들기는 해도 성화를 이루는 데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재혼을 하였습니다. 일찍이 사모사역을 위한 비전을 갖고 시작한 목회이웃기에 사모의 행복을 최대한으로 누리던 사역이 남편과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태어나도 사모가 되고 싶어요”하며 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모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목사와 결혼을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계속해서 재혼을 위해 기도해왔습니다. 그러나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재혼을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위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과부가 되었기로서니 무엇이 그렇게도 억울할까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께 재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아버지 이제 홀로 살 수 있는 체질로 바꾸어 주셔야 남은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사역하는데 익숙해져 있는 몸이기에 이제는 새로 빚어주셔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곡히 부르짖는 절규를 들으신 하나님은 7개월 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고 나타났다고 하는 목사님의 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도 응답을 주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힘들게 재현신하며 혼자 살기로 다짐한지 일 년도 채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헛갈려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고민하다가 결정하고 새 결단을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 와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주신 이도 하나님, 취하신 이도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읊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간절한 기도예 응답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축복

문임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하였습니다. “남편 앞에서 잘난 척할 필요가 없구나,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자” 하고는 용서를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이 한마디가 그렇게도 어려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무시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 다. 익숙하지도 않은 말을 하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생활 및 종교 활동은 많이 해왔기에 익숙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에게 용서를 비는 말은 잘하지 않았던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고자세였고 교만하였던가를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 바울의 고백인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이 고백과는 정반대로 ‘나는 날마다 사노라’였습니다.

특히 남편 앞에는 한 번도 지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남편을 편찬하는 말을 열심히 하였던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경우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비는 말을 듣지 않고는 다음 일을 하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침내 눈을 딱 감고 입을 벌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이 말에 남편의 응어리는 그냥 풀려나가며 오히려 우리 부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잘하려고 애쓰며 긴장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며 받아주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다이어몬드의 값이 비싼 이유는 많이 깎이었기 때문입니다. 면이 많이 깎인 다이아몬드일수록 값이 더욱 비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또 부딪치는 동안 깎이고 또 깎이어서 이제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 수 있는 사모에게서는 빛이 납니다. 이런 사모와 함께 사역하는 목회자는 행복합니다. 성도들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시18:1-6)

시1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무 감 사하여 넘치는 감격으로 하나님께 다시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시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는 감사의 찬양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셨

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힘이 돼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내가 환난 때에 기도하였더니 응답해주셨기 때문입니다(6절).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시18:3-6)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요! 다윗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나와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고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하는 순간까지 왔습니 다. 그러나 다윗은 사방팔방 길이 막히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 때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도 다

윗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도는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히려 환난 중에서 찬송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6절을 자세히 보면 처음에는 “아뢰다가”, 나중에는 “더욱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더욱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수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시18:6-11)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 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환난속에서도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 하반 “그 전에서 들으셨다”는 것과 “그 앞에서 부르짖음이 들렸다”

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분께 드리는 기도를 직접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직접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끈기있게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는 외부환경이나 내부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목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시18:7-15)

지금 눈앞에 어떠한 도움도 보이지 않고 좋은 기분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감감할 때 흑암 중에 행할 때 더욱 더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사 50:10). 믿음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제 7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이러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으로 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땅도 진동하고 최창살을 끊고 옥문을 열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을 두렵게 합니다. 할렐루야!

금 기도하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시18:7-15)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절“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슴이여 그 불에 쏘이 피었도다”고 하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다는 것을 동양적으로 표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이 상제받는 것을 보시면 가장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그분의 눈동자를 해치를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신속하게 온 힘을 다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파멸시킵니다. 지진과 폭풍이 일어납니다. 정말 장엄하고 멋진 장면입니다. 9절에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뻔뻔한 구름 가운데서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토 기도하는 성도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시10-16)

다윗은 늘 힘이 돼주시는 하나님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깊은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강림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 다.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역사하십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는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니가 놀랍게 역전돼서 어느새 그의 원수들이 곤경에 빠지기 시작했습

니다. 10절을 보면 장엄한 모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림”이란 하나님의 전차와도 같은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호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자들이요 성도들을 위해 일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타고 날아오십니다. 바람까지도 순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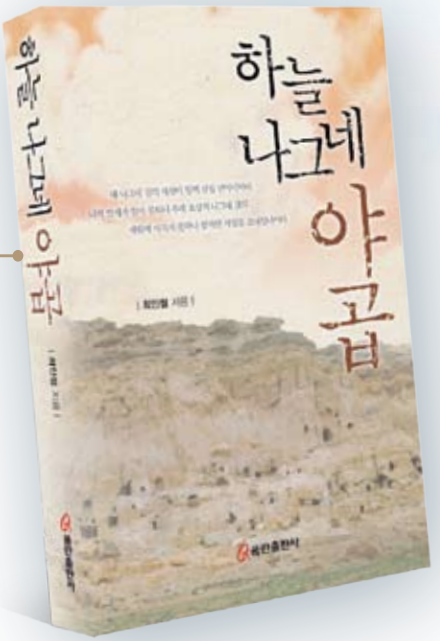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마가 카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드라마처럼 전개한 최초의 장편소설
의도를 찾아가는 일주일간의 기막힌 기록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의 발자취를 문학적 상상력과 영적 교훈으로 새롭게 써 내려간 책이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땀어지는 해피 스토리.
한 잔의 커피를 마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며 그 맛은 원두커피의 그것처럼 예수의 고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달콤하면서도 쓴 여운이 남는 그런 글입니다.

이순철 지음 / 368면 / 13,000원



하늘 나그네 야곱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나 147세를 살고 죽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저자는 야곱의 삶을 1인칭 야곱의 시점에서 이야기 식으로 풀어냈으며, 성경에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당시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각 장마다 덧말 정리를 통해 성경적 해석과 역사적 배경과 상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깊은 이해를 더한다.

최인철 지음 / 496면 / 18,000원



친절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유혹이 난무하는 혼란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에게 건전한 요한계시록 읽기를 제안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쯤 품어봤을 질문들을 목회자가 성도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서 혼자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은일 지음 / 360면 / 13,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쿤란: 쿤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중로구 이화장길 6

쿤란출판사

인/터/뷰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신임회장
전희수 목사(뉴욕 기쁨과영광교회 담임)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말씀 붙잡고 임기 시작

미주 한인교계 여성목사가 증가함에 따라 뉴욕교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제6회기를 맞으며 지난달 21일 전희수 목사가 새 회장을 취임했다. 전희수 목사(뉴욕기쁨과영광교회 담임)는 취임사를 통해 “이때”에 “기도”를 통해 여성목회자협의회를 이끌고 나가겠다고, 여성목

사합창단(샬럿양단, 지휘 김수경 목사) 창단 및 성탄찬양음악제 등 구체적인 실행안도 제시했다. 남성목사와 대비해 여성목사의 역할분담도 기대되고 있는 이 시기에 여성목회자협의회의 비전을 들어본다. 다음은 전희수 목사와의 일문일답. [편집자]

-여성목회자협의회의 회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하며 취임소감을 말씀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를 이곳 미국 땅에 세워 주시고 지난 5회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한, 지난 5회기 동안 본 협의회를 위해 수고해주신 초대회장 김금옥 목사님과 직전회장 이미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중에게 귀한 소명을 맡겨주신 회원 한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취임예배에 참석해주신 교계의 모든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회장으로서 임기 동안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제6회기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에스더 4장 14절인 “이때를 위함



이 아니냐”의 말씀을 붙잡았습다. 에스더는 그녀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 즉 민족의 위기의 때에, 자기 백성을 구원케 하기 위한 하

나님의 선한 계획임을 깨달았습다. 그리하여,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여 자기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음

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협의회에 속한 목사님 한 분 한분도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여성목회자들이 여기까지 오는 길은 연단과 훈련의 길이였을 것이고 그 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단과 훈련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비장의 무기인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

를 가지려고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합심기도를 통하여 아주사에 땅을 진동시킨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웨일즈에 작은 자를 통하여 나타났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모두 영성이 회복되어 더 나은 비전을 갖고 자신감 있는 여성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여성목회자들을 세워주며 성령으로 하나된 연합의 힘으로 회원 상호간의 교제와 목회정보교환, 더 나아가 사회와 교계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가 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여성목회자들이 모여이취임예배 때 처음으로 샬럿양단을 선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을 찾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 땅에 실현하는데 생명을 걸고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쓰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가 그랬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에스더가 그러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길을 걸어왔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 특별히 여성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는 성령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 때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 온갖 자연재해, 불의와 거짓이 만연한 시대, 영성

회원 상호간 교제와 정보교환... 잠재력 개발에도 힘써
월례기도회 · 여성목사합창단 · 성탄찬양축제 등 계획

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므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위기의 때를 회복의 때로 변화시킨 것처럼 본 협의회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이때’ 기도하며 영성을 회복하여 모든 사역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제6회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매월 정기적으로 기도회

또 6회기의 새로운 행사로 ‘성탄 축하 이웃사랑 찬양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축제를 통해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여성목회자들과 여성들을 찾아 위로하며 도움의 손길을 펴고자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여성목회자 자질향상과 개발에 노력하는 협의회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때에 저희 협의회 여성목회자로 세워주신 선한 뜻을 깨닫고 성령으로 하나된 연합의 힘으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모든 여성목회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남성목회자들과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 유원정 기자)

미국인들이 정감 느끼는 종교인 순위
유대인, 개톨릭, 복음주의 크리스천...

퓨리서치, 미국인들이 알고 지내는 타종교인들 설문조사 결과 발표

‘Melting Pot(멜팅팟)’이란 인종 문화 등 여러 요소가 하나로 융합·동화되는 현상이나 장소를 의미하며, 인종의 융광로’라고도 불린다. 흔히 미국과 같이 이민사회로 구성돼 다문화화 사는 현실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는 용어이다. 즉, 이민자들의 출신국 문화와 특징들이 융광로에서 기존 본국의 특성과 함께 녹아 새로운 국가적인 ‘합금’이 돼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다양한 종교구성으로 볼 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신들과 다른 종교인들을 알고 지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퓨리서치는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실제로 미국인들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알고 지내고 있는지를 설문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How many people of different faiths do you know?)

대부분의 미국인들은(87%) 개톨릭 신자인 친구나 어떤 사람들을 알고 지낸다. 2012년 인구센서스에서 미국 성인들 중 22%가 개

톨릭이기에 이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 성인들 중 32% 정도만이 자신들을 거둬들여나 복음적인 크리스천으로

표명을 하고 있는데도, 70%의 미국인들은 복음적인 크리스천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가 더욱 놀라운 점이다. 반면에 인구 구성비에 있어, 전체 인구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슬림들이나 불교인들 그리고 힌두교인들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많다. 많은 미국인들이 무슬림들(38%), 불교인들(23%) 그리고 힌두교인들(22%)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무신론자들이나 유대인들 그리고 몰몬교인들은 역시 각각 전체 인구비율에 있어 2% 정도밖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유대인들(61%), 무신론자들(59%) 그리고 몰몬교인들(44%)을 알고 지내는 미국인들이 많다. 이에 대한 적절한 해석은 바로 인구의 지형적 분포 때문이다. 서부 지역에는 몰몬교인들과 불교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 네바다를 거점으로 몰몬교인들은 68%, 그리고 불교도인들은 36%가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다. 북동부에는

거의 70% 정도에 육박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지내는 타종교인들은 많다는 것이 퓨리서치의 분석이다. 따라서 설문 조사의 표본으로 제시한 8개 종교인들에서,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4개 정도의 서로 다른 종교인들을 알고 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백인들이 흑인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알고 있고(4 vs. 3),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더 많고(5 vs. 3), 민주당, 공화당처럼 정당 차이에 따른 편차는 없었다(4 vs. 4). 이번 설문에서 흥미로운 질문은 바로 종교에 대한 선호도, 즉 정감을 느끼는 마음 지수를 설정해 물었다는 점이다. ‘정감 마음 지수’를 0에서부터 100까지 설정하고 물었는데, 이미 이러한 방법은 저명한 사회학자인 데이빗 캠펠(David Campbell), 로버트 풀남(Robert Putnam)이 시행한 연구를 통해 쓰여진 책(“American Grace”)에서 드러난 결과와 동일하다. 전체적으로, 미국인들에게 가장 많은 정감이나 호감을 받는 종교인들은 바로 유대인들(63), 개톨릭들(62%) 그리고 복음주의 크리스천들(61)이었다. 반면에, 무신론자들(41%)과 무슬림들(40%)은 가장 비호감적인 종교인들로 드러났고, 불교도들(53%), 힌두교인들(50%), 그리고 몰몬교인들(48%)은 중간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S 학교 승인 감사예배 및 개강 특별 강의 안내

(GRS Appreciation Worship & Special Lectures)

- 일시: 2013년 8월 19일(화) 오후 5:00-8:00 (식사 제공)
 - 장소: GRS 캠퍼스 (애들란타 제일장로교회)
- 개교 기념 설교 및 특별 강의(8월 18일-21일, 8:30am-5:00 pm)
강사: 정필도 목사, 특강 제목: “교회 재활성화와 성장”



모시는 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도하심에 힘입어 이번에 글로벌 리포드신학대학원(Global Reformed Seminary: GRS)이 그 동안의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1일, 조지아 주정부 교육청(GA. Nonpublic Postsecondary Education Commission)으로부터 우선은 목회학 박사 과정(D.Min.)과 석사(Master/Intercultural Ministry) 과정을 허가 받고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계속하여 조만간에 선교학 박사 과정(Ph.D/Intercultural Study)과 선교학 석사(M.A/Intercultural Education) 과정도 승인을 받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GRS는 북미주에서, 한국 교회가 전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경건과 학문과 실천을 고루 갖춘 한국 및 미국의 저명한 10여명의 신학교수들이 교수하며, 한국의 목회하는 교수들과 함께 선교지 여러 신학교의 신학교육을 지원하는, 글로벌 유형의 새로운 선교학 중심 최고 신학교육 기관입니다. GRS는 하나님의 말씀과 확고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바탕에 근거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의 재활성화와 선교를 주도해 나아가, 올바르게 참신하며 효율적인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지도자 양성에 확고한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학교 승인과 함께 권위있는 학위 인증기관의 승인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Chancellor: Dr. Samuel H. Larsen, President: Dr. Eunsoo Kim)

총장

(Dr. Samuel Larsen)



원장

Dr. Eunsoo Kim



교수

Dr. Allen Curry



교수

Dr. Harry Reeder



교수

Dr. Frank Barker



교수

Dr. Howard Eyrich



Global Reformed Seminary (GRS)

6175 Lawrenceville Hwy, Tucker, GA. 30084 문의: Tel. 770-493-4004, 770-827-9689.
grsglobal.info@gmail.com, Website: www.grs2011.org